FEB 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1 1983년 2월 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February 8,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장학의밤2만달러수익

장학재단 영구기금 $5만돌파

박희민목사 $5천 개인희사

「캐나다 내의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에 공헌할만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및 교육」에 주요 목적을 두고 설립된 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의 수익사업인 〈장학의 밤〉 행사가 교민들의 호응속에 해가 갈수록 수익금이 증가되고 있다.

5일밤 다운타운·홀리데이·인(Downtown Holiday Inn)에서 열린 제3회 〈장학의 밤〉은 12,000달러(주최측 잠정추계)의 순이익을 올렸다. 81년 제1회는 4,560달러 82년 제2회 때는 9,495달러였다.

문인식 총무는 6일 제3회 행사의 정확한 결산보고는 금주내로 밝혀지겠지만 행사 현장에서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담임목사가 5,000달러, 토론토연합교회(담임목사 이상철)가 3,000달러를 각각 약정했기 때문에 8,000달러를 계산에 넣는다면 제3회 순수익금은 2만여달러로 전년도의 2배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장학의 밤〉 행사수익금이 늘어나고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기금도 매년 증가되자 재단측은 지난해까지 교포자녀및 본국에서 온 캐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본국에 있는 불우한 학생과 신체부자유학생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이사 42명으로부터 갹출되는 연간 1인당 300달러의 찬조금과 〈장학의 밤〉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온 장학재단은 지난 회기말인 82년도 4월말 현재 38,334달러의 영구기금을 확보했으며 이번 3회 〈장학의 밤〉 행사의 수익금을 합하면 5만달러선을 넘게 된다.

강 공선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지 학생 장학금 외에 앞으로는 본국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차로 강원도 삼척여고 1학년인 오미운양등 전남·전북·경북·강원·충남의 5개도에서 선발된 5명의 학생과 이외에도 맹인후원회의 추천을 받아 맹인으로 단국대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는 양희성군에게 500달러를 각각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를 한다는 오양의 자기소개글은 이날밤 교민유정자씨를 통해 낭독,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62년 출생, 68년에 이민와서 토론토대학교에 재학중이며 2년 연속 장학금을 받은 백우선양은 이날 영어로 스피치를 해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말로 했으면 좋았을것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83-84회기의 장학생 선발도 예년과 같이 5명선이 될 것이며 대상자 선발은 금년에는 8월말로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총무는 5일 지금까지 4월말로 끝나던 회기가 금년부터는 9월말로, 매년 5월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도 10월초로 각각 늦추게 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따라서 강이사장단은 5개월 더 봉사하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장학의밤 이모저모〉

●이날 행사에서는 식순에 따라 한인회장의 축사, 이상훈 총영사의 격려사, 전토론토교육청(Board of Education) 이사장인 밥·스펜서(Bob Spencer)씨의 초청연설이 있었다.

●상패전달도 2건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장학재단의 창립 중심멤버이며 지난해 이사장직을 맡아 제2회 〈장학의 밤〉을 성황리에 끝나게 한 구상회 박사에게 수여된 감사패이고 또 하나는 장학생 선발위원을 역임하는등 창설당시부터 장학재단 발전에 공이 큰 고 로스·맥도날드박사에게 감사패가 추서되었다.

1913년 선교사의 아들로 평안북도에서 출생한 고 로스·맥도날드박사는 한국외국인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력도 있는 토론토대학 역사학 교수로 특히 한국종교에 대해 조예가 깊었다. 그는 81년 별세했고 감사패는 부인이 대신 받았다.

●6시부터 7시까지 약 1시간의안 칵테일 순서가 끝나고 7시30분부터 이상철 목사의 기도로 디너가 시작되었으며 강이사장의 인사로 시작된 공식행사는 9시4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제2부 쇼 프로에서는 백용빈씨 사회로 4인조 라이브밴드에 맞추어 미국에서 활약중인 장미라·최갑석 가수의 노래가 있었다.

●각계에서 기증한 7,000여달러의 각종 경품에 대한 2달러짜리 추첨권은 당초 2,000매 판매, 4,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주최측에 의하면 1,100장 정도 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경품 추첨에서 뜻밖에 횡재를 한 행운아는 가수 최갑석. 최씨는 이날의 최고 경품인 한국여행사가 기증한 1,490달러짜리 서울왕복 항공표와 한국일보 1년 구독권등 2가지나 당첨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활약중인 최씨는 한국일보 구독권은 장학재단에 다시 기증했으며 이날의 행운의 보답으로 장학기금 100달러를 선뜻 내놓았다.

●이날 민중신문이 내놓은 영구구독권은 민중신문사 발행인인 정철기씨의 부인에게로 돌아가 장내는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다. 정씨의 부인도 이를 다시 장학재단에 내놓았다.

●개인적으로 5,000달러의 장학금을 회사한 박목사는 자신도 「고학으로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은 일도 있으며 더우기 한인코뮤니티에 지고있는 빚이 많아 오래전부터 장학금을 내기로 결심」했었다고 말했다.

◆5일밤 캐나다 한인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제3회 「장학의 밤」 행사에서 강공선 이사장(왼쪽)이 전임 이사장인 구상회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미 군사협력강화 합의

전대통령과 방한중인 슐츠 미국무

(서울7일=연합)전두환 대통령과 방한중인 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은 7일 회담을 갖고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30분동안 이루어진 회담에서 슐츠장관은 한국의 방위에 필요한 미국의 군사장비의 보급을 계속할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 1975년 미국이 무상군사장비 공급을 중단한뒤 외국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계획에 따라 미국무기를 구입해왔다.

한국은 이번 슐츠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정부에 보다 유리한 조건의 FMS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에 한국은 FMS계획에 따라 1억6천만달러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구입했었다.

아시아순방의 일환으로 6일하오 서울에 도착한 슐츠장관은 7일 아침 일본을 향해 떠났다.

"대한해협 봉쇄시 한국에 사전 통고"

(도오꾜5일=연합)나까소네·야스히로 일본수상은 5일 유사시 대한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한국측에 사전통보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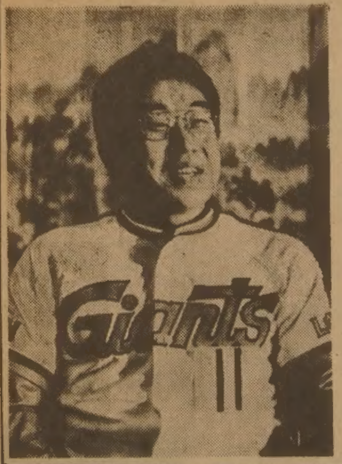
나까소네 수상은 이날 중의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본이 적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대한해협에서 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나까소네 수상의 이같은 발언은 대한해협을 봉쇄하기 전에 일본이 취할 외교적 절차를 밝혔으며 또한 유사시 한·미·일 3국의 3자방위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해석되어지고 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최동원, 롯데입단

토론토진출 물거품



◆롯데자이언트의 유니폼을 입은 최동원선수·그를 입단시키려던 블루제이스의 끈질긴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서울본사전화)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입단계약을 맺어 북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던 최동원(25)이 한국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익시비션·스태디엄에서 활약하는 그의 모습을 보려는 토론토야구팬의 기대는 꺾여졌다.

정통파 투수 최동원은 지난 3일 자신의 고집을 꺾고 롯데측이 제기한 계약금 4천5백만원(약 6만2천달러), 연봉 3천만원(약 4만2천달러)을 수락, 계약서에 사인했다.

최동원과 롯데구단은 이외의 다른 계약조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4일 배번11번의 롯데 유니폼을 입고 기자들앞에 나선 최동원은 『메이저 리그진출은 야구하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메이저 리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소속팀 롯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의 배경은 캐기 어렵지만 미프로 진출실패와 「4백만 부산팬들이 최동원을 원한다」는 지역적 연고의식이 최동원과 롯데를 손잡게 한 요인이 된 것같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남·북한 교차승인 추진

일정부, 중공과 교섭중…일 신문보도

(도오꾜7일=연합)일본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공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중공의 교차승인이라함은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대신 중공이 남한을 승인함을 말한다.

일본 외무성은 슐츠 미국무장관이 2월10일 도오꾜를 다시 방문, 외무성관리들과 회담할때 이에 대해 언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또한 니까이도·스스무 자민당 간사장이 2월18일 일본정부의 특사로 북경을 방문할때 「교차승인」문제에 대한 중공측 의사를 타진하게 될것이라고 신문들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소식통은 6일 일본외무성은 이 「교차승인」안에 지금까지 제안된 다른 어느 평화안보다 구체적으로 평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평양측의 태도로 보아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북한은 「교차승인」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왔다.

지난주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교차승인」안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위해 중공및 미국정부와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일·중·소 4대 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안은 75년도 유엔총회에서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창되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고려 인삼
대할인봉사

녹용, 인삼전문 수입상인 빅·세븐에서는 길림산 대형 녹용 1등품과 중국산 특산 보약 십전대보탕과 고려인삼 6년근을 대량 확보하고, 특별세일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말 제분하는 써비스도 하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빅·세븐 귀국 선물 용품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이대동창 음악회

450여교민참가

◆5일 저녁 세인트·로렌스·홀에서 열린 이대동창음악회. 출연자들이 전원 무대로 나와 청중들에 인사하고있다.

모교창립 1백주년을 앞두고 기독교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후진양성과 동창회기금 모금을 위한 이화여대 동창회(회장 이주연)의 이화음악회는 450여 청중들이 모인 성황을 이루었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우리 가곡과 귀에 익은 피아노곡등 약 2시간30분동안 진행된 이날 음악회의 출연자는 모두 이화여대동창들로 주로 음대출신이었고 김진화씨만이 법학과(64년 졸업) 출신이었다. 김씨는 이날 우리 가곡 〈그집앞〉과 슈베르트의 〈음악에〉를 불렀다.

이날 프로중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은 마지막 프로인, 동창회장인 소프라노 이주연씨의 독창.

이씨는 홍현정(82년 기악과졸)씨의 반주로 우리 가곡 〈진실〉, 슈베르트의 〈축복〉, 포레의 〈사랑은 실패 없네〉, 모짜르트의 〈용서하세요〉등을 열창, 갈채를 받았다.

음악회는 정각 8시, 출연자중 가장 선배인 김현순(기악과 56졸)씨의 반주, 이주연씨의 선창으로 이화여대 교가제창으로 시작됐다.

홍현정씨의 베토벤 소나타 Op.21, No.2, 김진화씨의 독창, 김영애씨(69 성악과)의 〈수선화〉, 〈거룩한 성〉, 〈기도〉, 〈나 혼자서〉에 이어 박성희(71 기악과)·고인숙(71 기악과)씨의 피아노 2중주, 장영자(61 성악과)씨의 〈아무도 모르라고〉〈기다림〉〈홍수〉등 4곡으로 일부 순서가 끝났다.

2부 순서에서는 박성애(69 성악)씨의 독창 〈옛날은 가고 없어도〉등 3곡과 두드러진 음악성을 보여준 이인선(65 기악)씨의 피아노 독주 슈베르트의 즉흥곡, 공명옥(65 성악)씨의 〈그리움〉등 독창 4곡, 박윤심(70년 기악)씨와 홍현정씨의 피아노 연탄 베토벤의 연탄곡 소나타 Op. 6에 이어 이주연씨의 독창으로 끝났다.

청중중에는 캐네디언들도 다수 끼어 있었으며 음악회가 끝난 후 가정과 졸업생들이 마련한 한식다과등의 간단한 칵테일 파티가 이어졌다.

이대동창회는 이날의 수익금중 일부를 오는 86년 모교창설 1백주년을 맞아 설립될 이화창설 1백주년 기념 도서관건립기금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주연 동창회장은 7일 "음악회 날자가 다른 교민행사들과 겹쳐 우려했으나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주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됨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다음 행사로는 이민 2세들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온타리오주내에는 300여명의 이대동창들이 있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⑨

독서로 맞고 보낸 나날

옥중생활

31개월간의 옥중생활중에 가장 뜻밖인 것은 육군형무소의 태도였다. 80년 7월 검찰로 넘겨져 육군형무소로간다고 들었을 때에는 실망이 컸다. "그리로 넘겨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커피를 차입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형무소와는 달리 좋은 대우를 받았다.

육군형무소에서는 소장이 감방에 책상과 책꽂이를 놓아 주었다. 책도 일반형무소에서는 가족이 차입해 주는 것에 한해 한달에 10권만 읽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백권도, 2백권도, 얼마든지 허용됐다. 이같은 특혜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범에 대해 베풀어졌다.

나는 담배와 커피를 좋아한다. 형무소 생활중 담배를 단념했으므로 별로 생각이 없었으나 커피만은 무척 마시고 싶었다. 그래서 형무소측에 몇번이고 커피를 차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무소장은 승낙했으나 외부의 모기관에서 거부했는지 내 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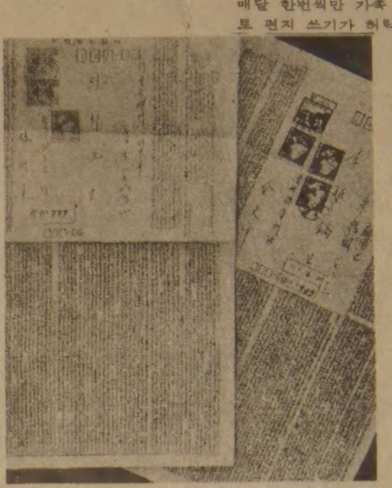
그러나 형무소장은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서 감방에 넣어주었다. 그의 뜻밖의 호의에 나는 놀랐다.

형무소의 대우가 좋은 것은 첫째로 직원들이 현역헌병이었기 때문이다. 계엄령하에서 일반형무소보다 말이 통하기 쉽다.

둘째로는 그들의 깔끔한 군인기질 때문이었다. "형무소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외부와의 연락이나 도망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사소한 일을 가지고 괴롭힐 것은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다른 큰 이유는 헌병들이 재판을 통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을 때 내가 보여준 태도에 호감을 품었다.

그후부터는 헌병들은 나를 도와주고, 옥중생활을 되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색이 짙었다. "담배를 피우시겠읍니까?"하고 권하기도 했다. 담배는 형무소 안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었다.


◆깨알같이 쓴 김대중씨의 옥중편지.

6—7백권을 독파

나는 81년1월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내렸으나 같은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작년(82년) 말경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충북 청주형무소에서 보냈다.

이 형무소에서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독서, 신학, 철학, 역사, 경제등 6, 7백권의 책을 읽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특히 애독한 책은 20세기 프랑스의 신학자 디알드·샤르뎅 신부의 저서, 제2바티칸공의회 문서, 버트란드·러셀의 〈서양철학사〉, 플라톤의 〈국가론〉,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일본 중앙공론사가 출판한 〈일본의 역사〉(전 26권)등이었다.

물론 독서의 내용에는 제한을 받았으나 시국관계, 감옥생활을 표현한 책, 공산주의 관계도서등은 금지되었다.

형무소 직원은 내게 대해 조금도 에누리가 없었으며, 일일이 감독기관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하곤 하였다.

1만4천자의 편지

청주형무소에서 내게는 매달 한번씩만 가족 앞으로 편지 쓰기가 허락되었다.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우편봉함엽서 뿐이었으니 긴 편지는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봉함엽서에 깨알같이 잔글씨로 빽빽이 편지를 썼다. 종이에 여백이 없이 잘게 꽉 차도록 편지쓰는데는 여섯시간 걸려서 다 쓰고나면 아주 지쳐버리곤 했다.

내가 석방전에 띄운 마지막 편지의 글자수는 1만4천자더라고 훗날 친구가 말했다.

편지 속에서 내가 중공의 제12차 전당대회와 소련정부 고관의 한국방문, 한국경제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으나, 밖에 있는 벗들에게 나의 의견을 전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었다.

물론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형무소 직원들이 될 수 있는껏 나에게 협력해 주었다.

형무소내에서는 재소자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낮에 1~2시간씩 꽃을 가꾸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꽃을 가꾸면서 속으로 "미안하지만 너를 잘라야 하겠다"등으로 꽃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여름 대낮의 태양이 내리 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이 시간만은 피곤을 못느꼈다.(계 속)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165>

이상한 女人 ⑩

"동생은 체포되고 나는 쫓기고 있어요"

이윽고 그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5층까지 있는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5층까지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문에붙은 숫자판을 읽었다. 513호였다. 복도를 둘러보면서 망설이고있는데 옆집에서 중년부인이 나왔다. 그는 고개를 꾸벅했다.

『실례합니다.』

여자는 추운지 어깨를 추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혹시 이댁에 여자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봐요.』

여자는 그의 아래위를 훑었다.

『이사온지 오래되나요?』

『아뇨. 한 보름 밖에안 됐어요.』

『뭐 하는 여자인가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사람을 찾고 있는데…고맙습니다.』

그는여자에게 꾸벅하고 절을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네, 알겠읍니다.』

여자가 가고나자 그는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세번 누르고난 뒤에야 인기척이 났다.

『누구시죠?』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여자가 잘볼수있게 문 앞에 똑바로 섰다.

『누구시죠?』

겁먹은 목소리로 여자가 다시 물었다.

『박문자의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경복궁에서 만났던 여자 말입니다.』

한참후 여자가 말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럴리가 없어요.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으니까 문을열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 찾아 왔다니까요.』

『나는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 내 동생은 경찰에 체포되었고요.』

그는 문틈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문이 열렸다. 이윽고 여자가 물었다.

『혼자신가요?』

『혼잡니다.』

여자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어떻게 알고 왔지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혼자지요?』

여자는 끄덕이고 몸을 돌렸다.

朴男 그림

「몰슨」테니스 8일개막

보그, 코너스등 세계8강대전

남자테니스의 정상을 겨루는 금년도 몰슨찰렌지(Molson Challenge) 테니스경기가 8일부터 13일까지 토론토 메이플·리프·가든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이 경기의 제1구룹에는 정상급인 지미·코너스, 은퇴선언을 했던 비욘·보그, 작년도 캐네디언 오픈챔피온 비타스·게룰라티스, 세계 29위인 팀·마요티 선수가 또한 제2구룹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도 본대회 패자인 렌들 선수, 18세의 후렌치·오픈 선수권자인 메츠·윌렌더, 세계10위인 맥나마라, 그리고 브라이언코트프리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

예선전은 8일밤부터 매일 6시30분에 거행되는데,

▲8일(화):
맥나마라—윌랜더
코너스—마요테
보그—게룰라티스

▲9일(수):
코트프리—윌랜더
게룰라티스—마요테
렌들—맥나마라

▲10일(목):
코트프리—렌들
보그—마요테
코너스—게룰라티스

▲11일(금):
코트프리—맥나마라
렌들—윌렌더
보그—코너스가 대전케 되는데 각 그룹의 상위 1, 2위가 토요일의 준결승에서 맞서게 되며, 일요일 오후 2시에 1,2 구룹승자가 결승전을 벌여 우승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금은 $10만이다.

티켓은 처음 3일간은 $10부터 $16짜리만 판매되고 후반 3일간은 각각 $15부터 $25짜리까지만 정문 매표소와 BASS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그, 코너스 시범경기 4월중 서울 본사주최

프로테니스계의 수퍼스타인 비욘·보그와 지미코너스 선수가 한국일보사와 일간스포츠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 시범경기를 갖는다.

금년도 은퇴의사를 밝힌 비욘·보그와 코너스는 4월 6일 서울 잠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한국팬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비욘·보그선수는 서울경기를 마친후 4월9일 동경에서 열리는 산토리컵에 출전후 은퇴할 예정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NHL 올스타 경기

출전자명단 확정

8일밤 뉴욕·아일랜더즈 아이스 링크에서 열리는 금년도 NHL 올스타 경기에 출전할 두팀의 명단이 확정되었다.

35회째를 맞는 이 경기에 동부지역을 중심한 웨일즈팀과 서부지역을 중심한 캄벨팀의 올스타로 선발된 선수, 임원은 모두 46명.

양팀은 각각 선수 20명과 1명의 코치 그리고 2명의 트레이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캐나다 출신으로는 캄벨팀의 코치 로저·넬슨씨를 비롯한 웨일즈에 4명, 캄벨에 8명등 총 13명이다.

금년도 최우수 선수로 선발된 에드몬톤·오일러즈의 웨인·그레츠키를 위시해 차점자인 칼가리 맥도날선수, 작년도 올스타전에서 선제점을 올린 토론토의 릭베이브 선수등은 모두 캄벨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웨일즈조에는 아일랜더즈의 작년도 올스타게임 MVP인 마이크 보시를 비롯한 필라델피아의 메릴·싯터등의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가 만만치 않다.

금년도 처음으로 선발된 선수는 모두 14명으로 평균 연령은 23세이다.

이날 경기에서는 올스타게임 MVP가 선정되고 푸짐한 부상이 수여된다.

작년도의 전적은 웨일즈가 4:2로 캄벨을 눌러 승리했다.

사할린 韓人송환운동

레이건·안드로포프등에 協調서한

日변호사협회

〈동경—UPI〉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2차대전이후 사할린에 억류중인 4만3천명의 한국인을 송환하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변호사협회 연맹은 4일 사할린 한국인송환 문제해결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두환대통령, 레이건 미국대통령,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등 비롯해 세계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美, 강간미수혐의 오남철

北韓억류 美國人과 교환노력

北韓외교관들, 再入國비자 거부로 곤경

미국무성은 강간미수혐의로 기소된 북한유엔대표부의 오남철 3등 서기관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수미상의 미국인들과 교환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신카고트리뷴지가 지난주 이사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5개월째 끌고 있는 오남철사건으로 대비동맹국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관리들에 따르면 비동맹회의의 정회원국인 북한은 지금까지 비동맹회의에 유엔옵서버대표부외교관 3~4명을 파견해왔었는데 오남철사건으로 국무성이 북한외교관에 대한 재입국비자발급을 거부 이들을 비동맹회의에 참석시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도착즉시 매진되는
인기최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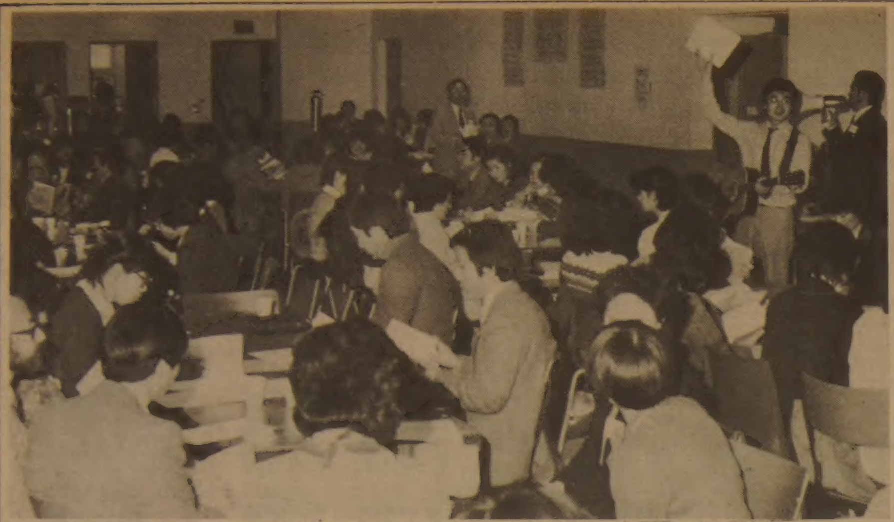
기대하던
D·Y가주미
또다시 대량 입하
〈50파운드 정량〉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는 각종 D.Y.물품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읍니다.

●참기름
●국수종류
ㅁ막국수
ㅁ우동국수
ㅁ소 면
●당 면
㊍D.Y.각종 밑반찬
●D.Y. 낙지
●D.Y. 멍게
●D.Y. 해삼

□판매처 삼복식품·제일식품·한발식품
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D.Y.IMPORT 총판 오 기 환 ☎: 622—5379



◆5일 열린 제2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수련회에서 수강생들이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배우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수련회 성료

20개교회에서 168명 수강

제2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수련회가 20개 교회에서 168명의 수강생이 모인 가운데 새한장로교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속되었다.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회장 이용술 장로)의 주최하에 교역자회, 장로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등 3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수련회에는 지난해의 제1회때보다 수강생이 40여명이나 더 많았다.

지난해 4월24일 33명의 창설멤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족을 본 교회교사연합회는 이날 점심시간이 끝난후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윤승열집사(동부교회)를, 부회장에 조국현집사(중앙한인교회), 임분옥씨(제일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토론토지구내에 위치한 한국인교회 교사들의 신앙향상과 교육방법의 연구및 개선, 각종 교역정보의 상호교환, 교사양성및 교사간의 친교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연합회는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칙개정안도 통과시킨후 교사양성기관 설치연구를 금년도 사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할렐루야 '83」행사에 교회교사연합회에서는 안내와 파킹관리를 분담하기로 결의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지도하는 각교회의 교역자, 장로, 교사및 교육에 관심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수련회는 오전에 조경자목사의 「인간성장에 따른 기독교교육(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홍순관 목사의 「성공적인 교회학교 여름캠프」등의 강의가 각각 1시간씩 있었으며 오후에는 이상철 목사의 「학생회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등 각부별 강습이 있었다.

이상철 목사는 강의를 통해 기성교회는 교포2세의 성격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학생들 자신이 에트닉·그룹 안에서의 실체를 파악해 적응토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의 취미와 신앙을 조화하며 나아가서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깊은 관계가 있는 생동하는 교회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목사는 캠프생활을 통해 자연의 조화를 호흡하고 협동하는 공동체생활을 경험하되 자연과 사회의 관계성을 통한 이웃과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해문제 연구에 활약

환경학자 정용승씨

한국계 환경학자인 정용승박사가 북미대륙의 한쪽끝에서 발생한 연기가 다른쪽 끝으로 번지고 있음을 증명해 냈다.

7일자 글로브·앤드 메일지에 따르면 노스웨스트·테리토리의 산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륙을 건너서 북동쪽인 뉴욕시와 5천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뉴펀들랜드 북쪽까지 이동했음을 인공위성을 이용, 추적해냈다.

이러한 연구는 캐나다의 가장 큰 환경상의 적의 하나인 산성비(Acid rain)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메트로 토론토 다운스뷰의 캐나다 환경성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정박사는 동료연구원 피터·서머즈씨와 함께 온타리오주 남단에서 예리호수(Lake Erie)로 북상하는 매연의 이동을 인공위성이 촬영한 일련의 사진으로 증명해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현대적 속담풀이〉

끝 부러진 송곳 ⑨

오 강 남 박사(종교학)

—인간성의 발견—

송곳은 뾰족한 끝이 생명이다. 끝이 부러졌으면 송곳이 송곳구실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송곳 아닌 송곳이다. 앙꼬 없는 찐빵, 오아시스없는 사막, 그대 없는 세상 — 모두 있을 것이 없는 상태, 본질적인 것이 결한 상태, 그래서 삭막하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상태다.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무엇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구실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 아닌 사람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맹자의 이른바 「네가지 끝」(四端)이라는 사상이다.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됨의 시발점,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정의의 시발점,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의 시발점,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은 지혜의 시발점. 사람에게 이 네가지 시발점(끝)이 있는 것은 몸에 사지가 있음과 같다."(II.1.6)

사람이 겉으로는 모두 똑같이 사람같지만 이 네가지 가능성을 가꾸어 「인의예지」로 계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지가 전장하고 주렁주렁 훈장을 많이 달고, 하늘에 닿을 듯 지식이나 재산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참된 인간성을 결한 인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별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성을 결한 인간을 맹자는 「사이비인간」이라고 했다.

사이비인간인채 겉을 아무리 단장한다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부러진 칼자루에 옻칠하기다. 본질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불없는 화로 — 오직 싸늘함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무서워진다. 나는 참으로 사람인가? 끝부러진 송곳인가?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THOUGHT SO, TOO.

「값이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것 같았어요」 I thought the price was ridiculous.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I thought so, too.

아직도 too와 either의 구별을 못하고 혼동하는 분이 많다. 「당신은 학생인가?」 Are you a student? 「네, 그렇습니다」 Yes, I am.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I am, too. 혹은 So am I.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정인 경우에는 too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I'm not a student. 하니까 「나도 아니오」하는 경우 I'm not, too.가 아니고 I'm not, either. 혹은 Neither am I. 라고 해야만 된다. 거듭 언급하면 긍정인 경우에만 too를, 부정인 경우에는 either를 사용해야 될것이다.

A: Brrr! It's cold! I thought it was supposed to get warmer today.
B: Yea, I thought so, too.
A: What did the weatherman say?
B: He said it would be warmer.
A: It must be the wind that makes it seem so cold. I'm freezing.
B: Me, too. Let's go inside.

A:어휴! 추워! 오늘은 따뜻해 질거라고 생각했는데요.
B: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A:관상대원은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했읍니까?
B:따뜻해 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A:바람때문에 그렇게 추운 것 같읍니다. 몸이 얼 것 같읍니다.
B: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있다.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을 만지는 경우에는
You're not supposed to touch it. 이렇게 얘기한다.
must be: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Mr. Brown. 브라운씨임에 틀림없다.
freezing:몹시 추운.
〈발음〉 supposed to:「써포우스터」로 발음된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532-7907
549 BLOOR ST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할렐루야 '83연합대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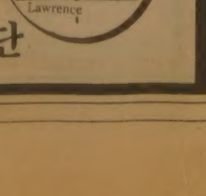
주제: 생동하는 신앙

□ 강사 : 김중기목사

82년도 북미주 교역자 연합수련회 강사.
현재 한국인 신앙계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능력의 종.

강사약력 : 1. 연세대 및 동대학원 졸업(B. TH. TH. M)
2. 하바드대학및 보스톤대학 신학대학원 졸업(ST. M)
3. 맥코믹신학대학원및 노스웨스턴 대학원 졸업(PH. D)
4. 보스톤 한인교회및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호노룰루기독교회 다년간목회
5. 현재 미연합장로교회 목사로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대 상	일 정	요일	시 간	장 소	
성 인	83.2.17~18~19	목금토	오후7시30분	펜티코스탈교회	300 Queen's Dr. Tor.
성 인	83.2.20	일	오후7시30분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청소년	83.2.19	토	오후2시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W. Tor.



□ 주최 : 토론토장로연합회

□ 후원 : 교역자협의회, 교사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 펜티코스탈교회, 한인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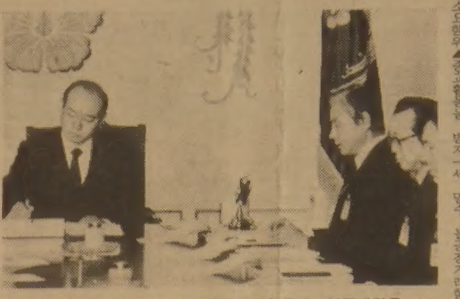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 健全한新聞

48개 行訴관계법 간소화

法務部 보고 訴願法등 국민權利구제 편리하게

開放·여자교도소 개설

高位層 빙자事犯 엄단



◇ 全斗煥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법무부는 행정편의위주로 돼있는 현행 행정소송제도를 국민의 권리구제에 편리하도록 돌리기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 올해안에 소원법(訴願法)을 비롯한 48개 행정소송 관련법률을 간소화 또는 체계화할 방침이다.

3일상오 全斗煥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법무부는 또 비위법조인에 대한 문책을 철저히하고 법조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 법조정화를 이룩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아울러 대량으로 배출되기시작한 신예법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용태세를 확립하기위해 관계전문가들로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위원회도 만들어 법조인양성및지역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법의 생활화와 법률구조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법조인과 의료인활동으로 봉사반을 편성, 벽지와 낙도를 방문, 법률봉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법무행정목표를「법과질서의선진화」에 두고 국법질서의 확립을위해 침투공산분자 처단은물론 자생적내부불순세력을 엄중히 경계, 국가기본질서에 도전하는 일체의 책동을 봉쇄키로했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학원내의 좌경의식화 활동 ▲집단소요행위 ▲종교활동등 빙자한 불순행위 ▲都産등 외부세력의 노사문제개입행위등 국가안보 저해요인을 철저히 색출, 제거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직무상 기밀누설, 압력, 청탁, 이권개입, 직무유기등 공직자 비리와 불법부당을 위한 정부시책을 악용하는 기업인의 악덕행위, 상습투기, 탈세, 밀수, 불공정거래행위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또 고위층·특권층 빙자사범및 이와관련된 유언비어날조및 유포, 무고, 위증, 명예훼손사범등에 대해 연4회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쇄신과 재소자특성에 맞는 과학적교정 기법을 개발한다는방침아래 과실범을 별도로수용할수있는「개방교도소제」의 도입을 추진하고「여자 교도소」의 개설을 단계적으로준비하기로 하는 한편 교정활동에 대한 사회의 참여폭을 넓히기위해 목사·신부·승려등 종교인 1천여명을 1백67개단체에서 초빙, 종교지도위원으로 위촉해 재소자교화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재소자에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부족한 교도소 의무관은 현재 무의촌에 파견되고있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토록했으며「재소자복지담당관제」를 신설, 재소자의 생활지도와 출소후의 생활상담및 취업알선을 돕도록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권행사의 적정을위해 공안·강력·경제·보건등 분야별 전문검사및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고도정보산업사회화에 따른 컴퓨터·신용카드이용범죄와 보험관련범죄, 산업스파이등 신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수립키로했다. 또 인신구속의 신중과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이행으로 인권보장의 실효화에 한층 힘쓰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순방으로 아프리카諸國의 상사(商事)및 형사관계법규와 사법절차, 출입국절차에 관한자료를 수집, 이를 알기쉽게 풀이한 책자를 만들어 유관기관과 관련기업체에 배포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에 법률적인지원을 할방침도 세웠다.

법무부는 이밖에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없애고 수용예산을 절감하며 가석방자의 실질적인 원호갱생을 위한「보호관찰제도」를 창안하고 ▲문호개방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사증(査證)면제협정의 확대와 상호허가제도의 활용으로 비자없이 입국하는 길을 넓히며 ▲안보위해분자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해외도피 재산의 반입을 촉진하고 ▲범죄인 인도협약체결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全대통령 指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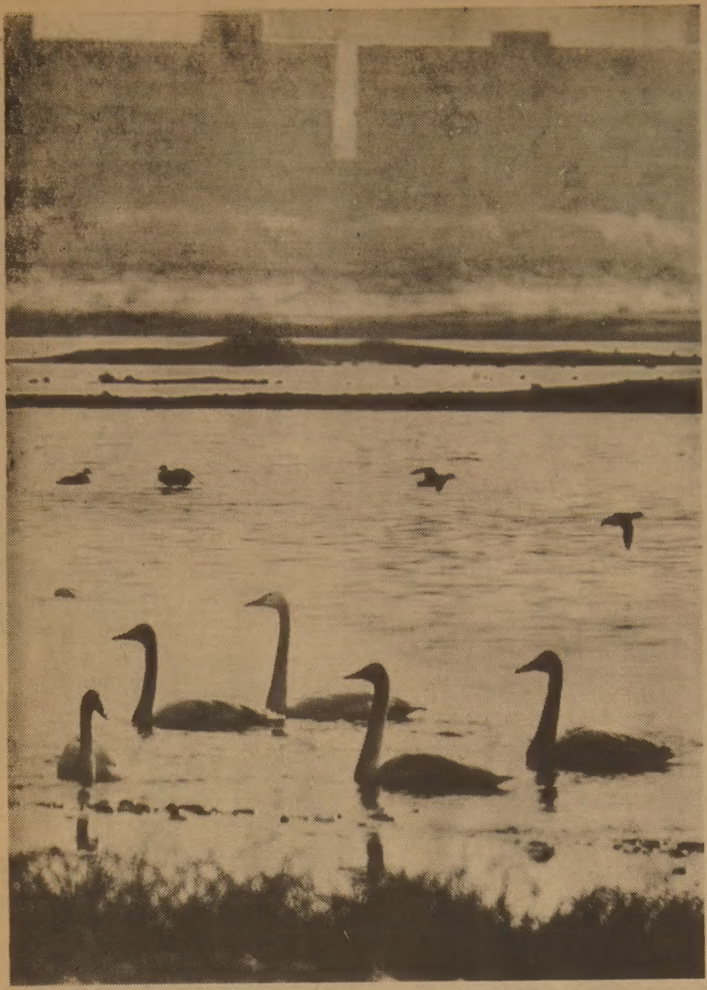
"질서침해·觀光사범 根絶토록"

全斗煥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裵命仁 법무장관으로부터 올해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法앞에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며 따라서 특권층이 있을수없다는 자세로 법무부직원들은 소신을 갖고 법의집행을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법무부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자像을 확립토록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86년아시아경기대회, 88년 서울올림픽에대비해 금년부터 질서침해사범이나 관광사범등을 특히 조직적으로 뿌리뽑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금년은 3大否定심리추방을 정착시키는 해인만큼 특히 법을 다루는 법무부는 부정부패와 무질서심리추방을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해 선도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라』고 강조하고『청소년보호를 소년원에 보내는것만으로 끝내게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부모가있을 경우 부모책임하게 선도하도록하고 그래도 안되면 2차적으로 엄벌하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야한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도박및 특권층을 빙자하거나 법을악용하는 각종사기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有關기관과 협조, 밀수와 마약사범을 뿌리뽑도록 조직적인단속을 펴나갈것 ▲법률상담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출입국관리업무를 올해에는 電子장비등 각종 과학장비를 도입해서라도 보다 선진화하도록 하며 ▲교도관들의 처우를 이미 개선된 경찰관처우와 균형을 맞추어 개선토록 할것등을 지시했다.



오늘立春… 6·25후 처음 漢江에 白鳥5마리

◇6·25이후 처음으로 철새의 귀족白鳥(일명 큰고니 천연기념물 201호) 5마리가 立春(4일) 하루전인 3일 한강을 찾아왔다。10월하순 찾아와 2월중순까지 머물다 시베리아와 북구로 돌아가는 이 계절의 진객은 전세계적으로 2~3천마리지만 우리나라에는 낙동강에 이따금 20~30마리가 온일밖에 없다。【니콘1,000㎜사용, 3일상오11시鷺梁전철교밑 한강 李基龍기자찍음】

TV·냉장고 特消稅제외

民正, 稅法改正 추진 맥주 酒稅도 내리기로

民正黨은 현재 高級酒에 포함되어있는 맥주를 大衆酒로 분류하여 課稅하고 냉장고와 텔레비전등을 사치품에서 生必品으로 포함시켜 특별소비세제품 대상에서 제외하기위해 관계稅法을 개정할 방침이다.

陳懿鍾 정책위의장은 3일 이를 위해 酒稅法, 特別消費稅法, 부가세법과 관세법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民正黨은 4개 稅法개정안을 마련하기위해 政策委산하 財務分科委에 특별연구반을 설치,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오는4월까지 改正試案을 만들 계획이다.

陳의장은『개인간, 業種간에 稅부담을 公平하게하고능력에 적합하게 세금을 부담하게하는 원칙에 따라 稅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酒稅法에 있어서 대중술과 고급술등 酒種간의 稅率차이를 보다 합리적으로조정해야하며 특히 맥주를 고급술에 포함시키고 있는것은 현실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소비세법에있어 냉장고 텔레비전등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生必品化되어있기때문에 特消稅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사치품을 대상에 추가하여 재조정할것이라고 밝히면서 附加稅法은 일반과세자와 課稅特例者간의 稅부담을 公平하게하고 현재 免稅및零稅率적용대상가운데 불합리한것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鍾哲총재 再選

국민全黨大會, 국회법改正등 촉구

◇金鍾哲총재

◇趙鼎九대회의장

◇趙炳奎중앙위의장

국민당은 3일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 별관에서 8백7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가운데 全黨대회를 열고 임기2년의 제2대총재에 金鍾哲현총재를 만장일치로 다시선출했다.

지난81년1월 창당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대회는 또 전당대회 의장에 趙鼎九의원, 부의장에 朴在旭의원과 柳凡秀 全州지구당위원장을 각각선출했다.

국민당은 이어 중앙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의장에 趙炳奎의원, 부의장에 李弼雨의원과 白正薰씨(전남長興지구당위원장)를 각각뽑았다.

한편 金총재는 오는5일기자회견을갖고 당면문제에 대한 黨의 입장과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金총재는 또 부총재와 黨3役및 당무위원을 비롯한 대폭적인 黨職개편을 가까운시일내에 단행할것으로보인다.

이날 金총재는 취임사에서『이나라에는 정치不在·경제不況·사회不信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으며 특히 近年에 이르러서는 권력지향적현상과 구조적인 경제현상이두드러지게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한후『이같은 정치, 사회적 病理현상을 唾棄하는데 앞장설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金총재는『민주주의 本領의 정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른바 限界政治의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히고『정치 被규제자에 대한 解禁, 地自制실시, 국회법개정등의요구를 정부·여당이 외면한다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이나라의 민주발전을위해 정치보복의 악순환만을 초래할 또하나의 先例로 기록될 政治刷新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하고 집권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각종선거제도는 고쳐져야하며 언론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야한다』고 말한후『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不信이 尙存하고있는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지않는데 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곳에 投機조사반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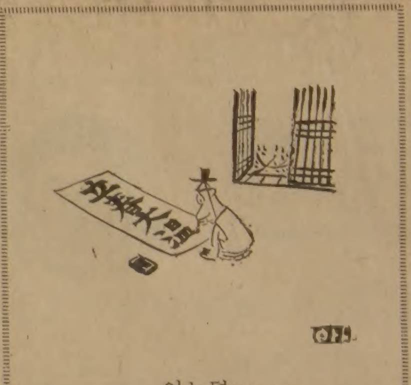
정부는 전국의 토지투기실태를 조사하기위해 4일부터 6개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서울근교, 大田, 濟州등 투기가 심한 3개지역에 투입키로 했다.

현지에 파견되는 3개합동조사반은 오는7일까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상황, 가격동향등 토지투기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게된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의 투기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부동산투기대책을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城南 板橋 果川등 서울근교와 ▲安城 天安및 大田市 확장방침에따라 새로 市에 편입될 지역 ▲濟州일원 등이며 합동조사반은 경제기획원, 내무, 재무, 건설, 국세청, 서울시및 현지 지방자치단체등 6개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다.

社會漫評



地平線

끝은 시작으로 통한다는 말처럼 물질의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되면 대우주의 생성과정(「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어떤것인가도 해득하게 된다고 한다. 자연과학의 엄청난 발달,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素粒子「위폰」은 공간세계의「끝」과「시작」을 조만간에 증명케되리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1976년에 이미 미국의 와인버거박사와 파키스탄의 살람박사에 의해「電磁力과 약한 상호작용(弱力)은 같은 힘」이란는것이 입증 되었다. 말하자면「統一이론」이다. 이「힘」을 지니고 있는 素粒子로서 가상된 것이「플러스」와「마이너스」의 電荷를 가지는「W+ㅡ」와「Z제로」였다.

▼그러나 이 입자는 전기도 띠고있고 질량도 엄청나 陽子의 80~90배가 된다는것이 판명되어 도저히 실험을 통해 드러내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것을 바로 얼마전 이탈리아의 젊은 물리학자 카를로·루비아가 유럽합동 원자핵연구소(CERN)의 초강력 加速器를 이용하여 드러내는데 성공했다는것이다. 루비아의「발견」은 지난週 뉴욕에서 열린 세계물리학회에서 발표되었다.

▼타임誌는 벌써 루비아가 다음 노벨物理學賞의 후보라는 소문이 나돈다고 전했다. 루비아는 CERN의 加速器를 1억달러나들여 5년간 뜯어고쳐서 5천4백억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흐르는 초고속「프로톤싱크로트론」으로 만들었다. 이거대한 도너츠의 튜브속에서 루비아는 陽子와 反陽子가 서로반대방향으로흐르게 加速하다가 한순간에 돌진해오는 두粒子끼리 맞부딪치게 만들었다.

▼이런 加速방식은 66년에 완성된 소련의 노보시빌스크 加速器가 처음이용했으나 15억전자볼트라는 낮은 출력의것이었다. 개조된 CERN의 加速器에다 超大 에너지를 투입, 서로 맞충게하다가 충돌시켰을때 나는 엄청난 충격으로 루비아는 W입자를 도려낼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 기대했던「Z제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힘」에 대한 統一이론은 증명해낸 셈이다.

▼다음에는「強力」(核力)도 W와 같다는「大統一이론」, 마지막 힘인「重力」도 같다고 하는「超大統一이론」이 입증되면 宇宙가 가진「힘」은「하나」로 모두 귀결하게 된다. 하지만 社會科學의 세계는 다르다. 未來學者토플러는 지금의「經濟學」으로는 현 經濟危機를 구할수 없다고 선언했다. 위기구제의 統一시나리오가 없다는것이다. 우리에게 巨大한 加速器는 없다해도 세계적 危機타개의 統一시나리오를 만들어낼 두뇌는 있지 않은가.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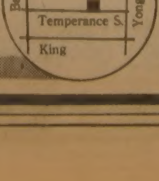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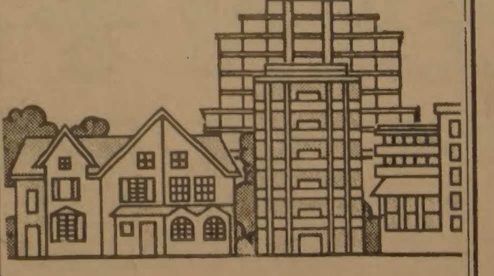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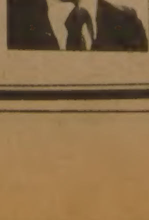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12 TEMPERANCE ST.
TEL: 368-2470 OPEN 7DAYS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
(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초밥, 국수류등)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에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이대환 不動產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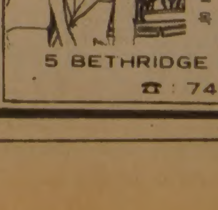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몰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 (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베트남軍 大攻勢 준비

泰소식통 泰·캄國境에 1개연대進駐

泰·베트남軍 쌍방간 砲擊戰

【방콕AP聯=聯】탱크와 중포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베트남군 1개연대가 1일 타이·캄보디아국경지역에 도착함으로써 캄보디아저항세력에 대한 새로운 공세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이군사소식통들이 2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베트남군 1개연대가 캄보디아의 스와이 체크읍으로부터 前크메르·루지요새였던 캄보디아반정게릴라집결지인 프놈 차트르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 이곳에는 작년7월 반베트남·캄보디아 3파연정이 수립된 후 반공캄보디아게릴라들로 합류해온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베트남군과 반공캄보디아게릴라사이에 지난31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캄보디아접경의 농찬난민수용소부근에서는 1일 타이군과 베트남군사이에 맹렬한 포격전이 벌어져 베트남군 약2백명이 사상하고 소련제T54탱크2대가 파괴됐다고 타이군소식통들이 말했다.

美, 이스라엘外交官 소환

레바논 美軍관할 탱크侵犯관련

◇레이건、아프간反政軍대표 接見　레이건美대통령이 2일 백악관접견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워싱턴을 방문한 아프간 저항단체대표들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워싱턴 2日AP聯=聯】

【워싱턴AP·UPI=聯】美국무성은 최근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미해병대와 이스라엘軍간의 잇단 충돌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2일 이스라엘군탱크가 미해병대 관할구역을 침범하려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정부는 이에 크게 분노, 워싱턴주재고위 이스라엘외교관을 소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도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날사건을 상세히 보고했다.

국방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열국제중형탱크 3대가 이날 베이루트의 미해병대관할구역을 통과하려하자 이지역 감시초소에 근무중이던 찰스·존슨 미해병대대위(30)가 선두탱크위에 올라가 이스라엘병사에게 장전한 권총을 겨누고 물러갈것을 명령했다. 국방성은 일촉즉발의 위기속에서 50분간 대치한끝에 이스라엘탱크가 물러남으로써 사태는 무사히 수습됐다고 말하고 이날 사고는 최근 벌어진 양국군간의 6~7차례에 걸친 충돌가운데 가장 심각한것이었다고 말했다.

50분간 對峙 긴장高潮

回教지역선 佛軍2명被擊부상

【베이루트(匹)=聯】이스라엘군탱크 2대가 베이루트주둔 미해병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려다 저지당한 사건에 이어 다국적평화유지군에 배속된 프랑스군병사 2명이 2일 달리는 승용차로부터 발사된 총탄을 맞고 부상했다고 프랑스관리들이 밝혔다.

이날 부상한 프랑스군병사들은 베이루트의 회교도거주지역에서 동료들과함께 무장도 하지않은채 조깅을하던중 3명의 무장괴한이 승용차에 탑승, 질주하면서쏜 총탄에맞았다. 1천6백명의병력을 가진 프랑스부대가공격을 받기 1주일도 채안된 사이에 벌써 3번째다. 이러한 사건들은 레바논기독교민병대와 드루즈파 회교민병대가 베이루트동남쪽 슈프산악지대에서 전투를 재개, 2명의 사망자를낸 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美·中共관계 改善키로

슐츠·吳學謙 中共외상 1차會談

【北京AP聯=聯】조지·슐츠 미국무장관과 吳學謙중공외상은 2일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45분간 1차회담을 갖고 미중공관계를『확고하고 항구적인 바탕위에서』전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슐츠장관을 수행중인 한미고위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미중공외상회담이『매우 진지하게』진행되었다면서 회담에서는 두나라의 입장이 크게 다른 중동문제와 남부아프리카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제문제들이 충분히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공식회담에서는 대만문제가 제기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會談에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吳學謙은 대만문제에 언급, 두나라의 관계에는『아직도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해 이문제가 양국관계를 긴밀히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슐츠장관은 이날 東京으로부터 北京에 도착한 직후 吳學謙과 만났으며 이어 저녁에는 吳가 주최하는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슐츠장관은 3일 吳와 제2차공식회담을 가지며 4일에는 趙紫陽수상, 王丙乾재상, 賈石무역차관과 그리고 5일에는 중공의 최고실권자 鄧小平과 만날 예정이다.

濠, 3월 總選

【캔버라AP=聯】맬콤·프레이저 호주수상은 오는10일에 임기가 끝나는 의회를 조기에 해산, 오는3월5일 조기총선을 실시키로했다고 3일 발표했다.

프레이저수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를 치유하려는 자신의 경제정책에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재규합하기위해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니니안·스테판총독이 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총선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故金義澤씨에 훈장

정부는 3일 故金義澤民權黨총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추서하고 사회장에따른 장례비 일부를예비비에서 보조키로 했다.

本社來訪

▲安京模씨 (前産業基地개발공사社長) 退任▲徐英勳씨 (興士團본부이사장) 新任▲林森씨 (週刊리빙뉴스發行人) 創刊인사차

얼굴

趙鼎九 국민당 全黨大會의장

온건·과묵한「黨內의 長老」

정치보다는 사업에 더 관심이 많은 全國區출신의겸직의원. 黨內에서 67세로 가장 나이가많은데다 가장 말이적고 黨內문제에 언제나 中立을 지키는 온건한 신사로 동료의원들로 부터 「점잖은분」이란 評을 듣고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2년간 국회 본회의는 물론 소속 상임위인 經科委에서도 일체 발언을 삼가고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한별난 스타일때문에 오히려 주위의관심을모으고있다. 趙의장은 감투욕이 없기로도소문나있는데 바로 그점때문에 實權보다는 명예직이라 할수있는 全黨大會 의장직을 맡게 됐다는후문. 三扶토건회장으로 8년간이나 건설협회회장직을 맡기도 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원로로 취미는 골프(핸디20)와 바둑(5급)이며 술자리에선 양주한병을 거뜬히 처리한다고.

趙炳奎 국민당 中央委의장

적극적思考에 中庸的行動

매사에 능동적이고 소탈하며 특히 대인관계가 원만한 黨內 內務행정通. 舊공화당創黨당시 사무국요원으로 政界와 잠시인연을 맺은후 다시 官界로 되돌아가 내무부기획관리실장·慶南·京畿지사를 거쳐 10代維政會소속으로 金배지를 달았다. 11代선 晉州·晉陽지구에서 재선, 2選의원으로 특히 상임위활동(內務委)에서는 내무부관료시절에 얻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에대해「소금」과「사탕」을 고루 구사할줄 아는「中庸」的 인물. 지난 宜寧총기사건때는 매서운 질의와함께 내무공무원출신답게 경찰을 감싸는 아량을 함께 보이기도 했다. 慶南泗川産. 취미는 바둑·골프. 부인 金瀚順여사와의 사이에 3男3女.

記者의 눈

보물선

新安앞바다 보물선의 침몰연대와 荷主가 밝혀짐에 따라 또한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있다. 76년부터 7년동안 계속돼온 유물인양작업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수천점에달한 도굴도난사고만 겪지않았더라도 新安보물선의 신비가 더 빨리 밝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至治三年六月一日이라는 보물선연대와 東福寺라는 荷主를 알수있게된것은 물건을 표시하는 꼬리표인 木簡에 써놓은 글씨때문이었다. 서기1323년6월초 중국 慶元路(寧波)항에서 포장할때 매달아놓은 木簡에 나타난 銘文중의 하나인 東福寺는 일본에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이름나있는 사찰이다.

교오또(京都)市東山區 慧日山에 있는 이 절은 臨濟宗이라는 종파의 本山으로 日本茶의 개조 圓爾弁丹(1201~80년)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日本讀賣新聞2일字보도】

이 사찰경내에는 南宋의 無準師範像을 비롯 국보들이많아 일본연대로 가마꾸라(鎌倉)시대 말기 우리나라로는 고려 忠肅王때에 이사찰이 무역주체로활동했음을 알수있다.

문화재관리국 당국자는 2백80여점의 木簡을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알콜에 담군후 硬化처리를거쳐 적외선촬영을할경우 더많은 글씨를 해독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현재는 東福寺와 綱司라는 글씨와 판독을통해 보물선의 행선지및 荷主로 추정하고있으나 읽을수있는 木簡이 늘어남에 따라 동양3국의 무역판도도 확실하게 드러날것이 틀림없다.

新安앞바다 보물선에서는 동전과 수만점의 중국도자기와 고려청자도 작은 수이긴하나 몇점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한반도 어느항구에 들렀든지 아니면 한국과도 무역을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수 있다.

2백톤급 무역선이라면 요즘 기준으로는 과히 크지않다. 그러나 14세기만 해도 항해기술이 뛰어나지 못했고 주로 무역풍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바람을 타고 항해도중 침몰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新安해저유물을 전세계학자들에게 공개하고 연구교류를 할것을 제창한바있다. 6백60년전에 있었던동양3국의무역사를 밝히기위해 韓·中·日3국학자들이 공동연구조사를 해봄직하다.

문화재관리국은 오는 5월1일부터 新安해저 유물에대한 발굴인양을 시작한다. 제8차가 되는 올해발굴작업은 그 어느해보다활기찬 연구조사가 될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는 귀중한 역사자료들을 한점이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할것 같다. 【李忠雨문화부차장】

社說

豊年설계 蹉跌없나

—立春, 營農의 새기지개를 생각함

오늘은 立春. 겨우내 웅크리고있던 보리싹은 날씨가 풀리면서 어느새 푸르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요즘 농촌에서는 複合영농등 올농사프로그램짜기에 바쁘고 영농교육과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도 한창이다. 옛날같으면 긴겨울 온돌방에 앉아 잡기로나 소일하던 농민이 새 농사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거름을 나르고 메마른 땅의 흙갈이 준비를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곳곳에 세워진 비닐하우스에선 채소촉성재배에 열을 올리고 축사에선 송아지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겨우내내 한가하던 예전모습은 이제 찾을래야 찾기힘들다. 젊은이들은 농기계강습에 나가고 아낙네들은 부녀모임을 뻔질나게 열어 농가부업, 소득증대, 마을복지향상의 지름길을 의논하느라고 부산하다.

지난해에 겪었던 가뭄의 아픔을 농민들은 아직껏 잊지않고있다. 올 농사에 쓰일 물은 넉넉한는지, 미리 다져보며 지난해를 몇배앞지를 풍년맞이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을까 모든것을 점검하는 중이다.

北學議를 쓴 朴齊家는 농사에 天時, 地利, 人事를 잃지말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농사의 적기를 잃으면 天時를 잃고, 適地適作을 못하면 地利를 잃으며, 농산물의 유통이 안되고 놀고 먹는자가 많으면 人事를 잃는다는 뜻이다. 한겨울에라도 시간을 벌어야 파종, 모내기, 풀베기, 추수를 제때 제때할수있다는 얘기가된다.

마을에서 篤農家로 소문나는 농민의 논에 가보면 거름과 볏짚이 고루깔리고 秋耕은 일찌감치 끝내 얼핏 보기에도 농사를 반이나 지은것 같다. 또 비닐하우스나 축산농가는 겨울이 따로없고 일년내내 바쁘니 그만큼 소득도 많을것이다.

우리농가속담에 여든에 팔십리길도 다 가놓고 쉬라는 말이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그르치므로 할것은 그때 미리 해야된다는 격언이다.

지상과제인 쌀의 자급을 위해서는 국민1인당 한섬꼴인 3천8백만섬은 무슨 일이있어도 생산해야된다. 지력이 쇠진한 우리논에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심어 풍년을 엮어내려면 남보다 노력이 그만큼 따라야된다.

화학비료나 퇴비가 그나마 시기를 놓치고 그동안 안쓴다는것을 써가지고는 풍년은 어림도 없다.

쌓이면 냄새나는 거름도 뿌리고 깊이갈면 그보다 더좋은 비료는 없다. 지력이 몇갑절 좋아지므로 목록히 겨울부터 객토를해야 올해 농사에 대비가 되는것이다.

정부에서도 겨울철 노는 손 없애기운동과 대규모 영농교육을 벌써 펴고있다. 마음만 먹으면 힘든 농사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을수있는 편한 시대가 되었다.

또 농사는 농민들이 짓는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어느해 못지않게 많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것이다. 가뭄에 대비해서 5만공의 소형관정을 올겨울에 파고, 용수원확보에만 7백7억원이 지원된다고한다.

식량증산을 위해 새해 농업기반조성에 모두 3천억원을 들이고, 또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의해로 정한는등 정부의 지원책도 적극적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농촌의 농산물저장 시설이 한마디로 무에 가깝다는점이다. 저장시설과함께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먹어놓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생산원가가 비싸다고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그원인을 규명하고 농산물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하는것도 결코 꿈만은 아닐듯 하다.

풍년은 하늘이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 따라야 얻어 질 따름이다. 올해 농사를위해 기지개를 힘껏 펴야한다. 우리농촌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지 이미 오래다. 문전의 옥답만 농사짓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농업생산기반이 변동된만큼 기계화, 기업화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봐야 우리농업도 더 발전할수있을 것이다.

새해의 영농설계를 꼼꼼히해서 「단보당 벼한가마 증산」과 複合영농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한 품종개량이나 유전자공학의 도입등, 새로운 노력과 전진으로 풍년의 꿈을 서로가 가꿔야 할때는 왔다.

기름값調整 시기尚早

—一部가격 引上說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原油가격이 引下될 전망과 추세에 있는 이계제에 비록 부분적이나마 국내石油類값을 引上조정할것이라함은 납득되기 힘든 소식임에 틀림없다.

근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3월말이후로 예정했던 油價조정시기를 앞당겨 휘발유와 LPG는 각10%선, 그리고 벙커C油는 소폭으로 인하시키는반면 油化原料인나프타3~4%, 庶民用 등유·경유는 4~5%선정도 인상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정의 배경은 우선 引下의 경우 휘발유값은 특별소비세율이 내렸고 벙커C油는 국제가격보다 비싸기때문이며 LPG는 경쟁적인 공급과잉실태를 반영한데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에반해 나프타나 등유·경유 값을 올린것은 그동안 換率인상등으로 原油도입 코스트가 累增돼온데다가 油價체계를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기위한 일련의 조치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생각하면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분열이나 현물생산과다로 말미암아 국제원유값이 날로 떨어지고있는 판국에 이처럼 일부 국내기름값, 그것도 서민이 많이 쓰는 油價가 구조적으로 上向 조정되려 한다는것은 그이유가 어떠하든 일반으로서는 실정적인 거부반응을 갖지않을 수없게하는 현상이다.

국제원유시장동향을 살펴건대 앞서 제네바 OPEC회의의 결렬을 전기로 사우디등 일부국가의 引下거부태도에도 불구하고 배럴當34弗기준가격은 사실상 무너진것으로 단정하여 무방한 상태다. 또 30弗내외 수준으로까지 유가가 하락할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을듯 하다.

그에 박차를 가하듯 現物시장가격은 이미 28弗선을 밑돌고있으며 非OPEC 최대산유국인 미국산원유값은 물론 소련産원유값 또한 근래 내려버렸다. 油價하락소식은 요즘 날로 과다해지기만 한는 참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떨어지는것을 가리켜 흔히들 오페크 여러나라의 利害不一致로인 한카르텔의붕괴때문이라 하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론 34弗수준이 지나치게 비싸다는것과 두차례의 오일·쇼크때문에 석유소비량자체가 늘지 않는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英國, 멕시코같은 非오페크국가의 產油量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기름생산이 과잉·증가상태에 있는 탓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일부 오페크국가에서는 油價不引下를 말하면서도 이면에선 자기네 석유를 더 팔기위해 공공연한 가격 割引판매를 일삼고있다. 아울러 稅制上의 優待와 구매자를 상대로한 長期信用 차관까지 제공 하고있어 이런경향이 또한 油價引下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있음을 看過할 수없다.

일부 종류의 기름값이라하여도 그 인상을 왜 서둘러야 한다는데 석연치 않은 생각이 앞서는것은 바로 이같은 국제 원유시장동향 때문이다. 실상 우리나라 石油類값, 특히 도입 原油값에 불합리성이 심한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지난79년 제2차 石油쇼크에 즈음해서 당면한 物量확보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가장 不利한 가격기준으로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한때문임은 잘 알려진대로다.

따라서 이 不利하고 불합리한 원유 구매조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지금 이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것이다. 한때도 국내인상要因만을 이유삼아 석유값의 실질적 인상이나 피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인것 같다.

석유값인상이 物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低物價정책을 위해서도 재고돼야 할일인데, 그인상조정은 현재로서는 의당 보류하도록 권하고싶다. 설령 국내유가의 전면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原油價의 向方과 맞추어 오히려 引下의 전망이 없을지를 모색해볼직한 계제가 아닌는지 모르겠다.

더나아가 原油導入先의 多邊化와 우리에게 보다 有利한 경쟁적도입가격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原油도입能力을 갖춘 광범한 업체들로 하여금 그 도입에 참여할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할것으로 보인다.

政局往來

◆全대통령、法律用語 쉽게하도록

全斗煥대통령은 3일 상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 일반국민들이 잘 이해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法令集은 상식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이해할수 있도록 편찬하라』고 당부하고『이것도 바로 先進化과업중의 하나』라고 지적.

全대통령은 교도관들에대한 교육을 강조하면서『在所者중에는 강력범도 많아 교도관들이 구타당하게되면 업무를 수행할수 없기 때문에 武術을 포함해 체력단련에도 특히 유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출입국 관리국직원들은 최소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외국어를 꼭 습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검찰이 갖고있는 銃器類등 각종 장비를 일제히 점검, 폐기할것은 폐기하고 활용할것은 활용토록해 예산을 절감토록하라』고 지시.

◆「政治受難」속의 金총재 재선

創黨후 처음으로열린 3일상오의 국민당全黨대회는 競選없이 金鍾哲총재를 만장일치 재추대가 확실해선지 야당정치행사답지않게 비교적 조용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속에서 약1시간20분동안 진행.

9人組악단이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대회장에 들어서는 대의원들은 모두 어깨에「必勝85」「뭉치자」란 구호가 적힌 띠를 둘렀고 李萬燮·尹錫民부총재와 함께 金鍾哲총재가 입장하자 1천여명의 대의원과 참관인들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全黨대회의장단 선출이 간단히끝난후 총재선출의 案件이 상정되자 場內는 잠시 가벼운 긴장감을 보였으나 趙一濟의원이『81년창당이후 엄청난 정치적수난속에서 黨을 이끌어온 金총재를 黨務會議제청대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자』는 추천동의를하자 대의원들은 기립하여 박수로 金총재를 재선출.

이날 대회장엔 金총재초상화를붙인 2백개의 피킷과 3백개의 구호피킷이 대의원에게 배부되었으나 대부분 바닥에 내려놓은채 막상 金총재당선을 알리는 순간까지도 처들지않고있다가 사회자가 주문을하자 들어올리기도했다.

이날 대회장2층엔 駐韓외교사절로 버나드·트레이몬드 스위스대사와 駐韓美대사관 퀘네스議會담당관이 시종 대회를 지켜보았고 단상엔 全斗煥民正黨총재와 柳致松民韓黨총재가 보낸 대형화환이 놓여 있었다.

이날대회는 또 金永光의원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은 長文의 祝詩「거북이의 진전」이 낭송되어 異彩.

全黨대회폐회가 선언되자 그동안 金총재와 黨權경쟁을 벌이다 포기한 李부총재는 양팔을 높이들어 대의원들에게 인사하여 열렬한 박수를 받았는데 이에 질세라 金총재도 양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국민당 全黨大會… 박수·祝詩뒤에 「院外푸대접論」등으로 한때 소란

이어 열린 中央委전체회의는 지난 몇몇 중앙위원이 院外푸대접論을 늘어놓으며 잠시동안 소란을 피워 눈길.

前교육문화분과위원과 노동분과위원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鄭泰高·金庚歡씨등 두위원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기위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趙顯相의장이 이를 묵살, 中央委의장에 趙炳奎의원, 부의장에 李炯雨의원·白正基씨의 만장일치 당선을 선언하자『이대회는 無效다』라고 외치며 퇴장했다.

이들은『이번에 선출된 회장단개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院內중심의 당직개편으로 院外당원은 이제 설땅을 잃게되었다』고 흥분.

◆江原道 無公害政治人論도 나와

3일 상오 民正黨의 寧越·平昌지구당(위원장沈明輔의원)개편대회는 20여명의 당직자와 소속의원이 격려차 내려오는등 盛況裡에 진행.

이날 李相宰사무차장은『江原道는 三寶의고장으로 山水와 자원, 풍부한 인심, 나라를이끈 인물을 많이 배출한곳』이라면서『이곳의 물처럼 無公害정치인인 沈위원장같이 맑은 정치를 지향하자』고 강조.

이어 沈위원장은『一身의 안락이라는 私益보다는 公人의 자리라고 省察하면서 이시대를이끄는 民正黨에 몸과 마음을 다 던지겠다』고 다짐하고『先進조국은 民正黨의 5大 이념을달성할때 국민의 손아귀에 잡히는 實像이될수 있다』고 강조.

이날 대회에는 宋志英 洪鍾旭 李熙의원등이 나서 격려사를 했는데 대회장에는 같은 지역구 출신인 民韓黨의 高泳耉의원의 축하 화환도 보였고 때마침 48회 生日을 맞은 沈위원장은 당사에서 生日케이크를 자르며 自祝.

【卓越=金永煥기자】

◆民正의「留聲器」발언에 民韓발끈

民韓黨은 최근 民正黨 지구당 개편대회에서「야당은 20년전 留聲器」운운한 발언에 불쾌감을 보이면서 잠잠했던 對與 공격을 再開.

林鍾基총무는 3일『20년전이라면 留聲器시대가 아니라 黑白TV시대』라고「黑白의 의미」를 강조한뒤『야당은 좀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하는 모양인데 여당도 하루 빨리「힘의 논리」를 탈피해야 할것』이라고 맞충고.

柳漢烈 사무총장도『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확립이라는 밝은미래를 내세우는 우리가 낡은 留聲器인지, 지방사업이나얘기하는 民正黨이 舊態한 자세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孫世一당무위원은『집권당의 당직자라면 새시대정치像이나 國政지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지 야당이나 비방하는것은「先進」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세』라고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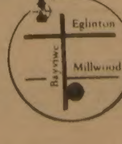
한편 李泰九부총재는『國政을 논해야할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일만 보니 사소한얘기만하는게 아니겠느냐』면서「大人無慾速 無見小利」(큰사람은 욕심에서두르지않고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다)라는 古語를 들어 一鍼.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원

酸性안개

한강下流지역 가장 심해

기침등 呼吸곤란…惡臭도

연탄가스·자동차煤煙등 뒤범벅

◇안개의 浪漫은 옛말… 한강변의 짙은 안개가 산성화돼 오염안개가돼가고있다. 이안개속에서는 평소보다 대기오염이 짙어져 주민들은 악취는물론 눈병·호흡기장애로 시달린다.

대기오염이 심해져 산성(酸性) 비가 내리더니 최근에는 「산성안개」까지 나타나 걱정스럽다. 안개가 끼면 주택가의 연탄가스,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이나 빌딩의 매연등이 대기중에 확산되지 못하고 안개지역에 농축된 상태로 남아있는데다가 아황산가스가 안개때문에 황산으로 바뀌면서 대기를 산성화 시키고 있는것.

이 「오염안개」는 안개가 자주 끼고 공장지대등과 접해있는 서울 한강하류변이 심하다.

따라서 「오염안개」속에사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훨씬 오염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게돼 심한기침과 목이붓는등 호흡기 질환에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안개가 심하게 끼는날에는 심한 악취까지 동반해 창문을 열지못하는가하면 밤잠을 설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같은 「오염안개」에 시달리고있는 지역은 서울麻浦區西橋洞 合井洞 城山洞、龍山區 元曉路일대、永登浦區堂山洞、九老區 禿山洞등제1한강교에서 金浦에 이르는 한강과 안양천주변인데 공장이 밀집돼있는지역 일수록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조사에서도 밝혀졌는데 최근서울시가 조사한 洞별대기오염도에따르면서울江西區登村洞의 경우연평균오염도는0·072PPM이나 겨울철 안개가 끼는날이면 0·11PPM을 초과、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인 0·05PPM의 2배나되는 심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안개가 공해를 부채질하는현상은 대기가 산성화현상을 일으키는데다 난방용벙커C유에서 나오는 검댕등의 입자상물질이 확산되지않은채 대기중에 정체되기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있다.

한강변에 안개가 자주끼는것은 서해안의 습한 공기가 많이밀려오는데다 한강의 수온이 겨울이면 대기온도보다 높아 증발량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안개란는 자연현상은 물리칠수없는 것이고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높아갈수록 안개로인한 오염가중현상은 심각한 단계에접어들것임이 분명하다.

서울江西區鹽倉洞 李仁淑씨(33·여)는 『안개가 끼는날이면 어른들은 물론 막내아들(4)은 눈물을 흘리며 『특히 주변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매연과 安養川의 악취가 하루종일 가시지않아 불쾌감은 이루말할수 없다』고 호소하고있다.

또 江西區登村洞 李玉禮씨(30·여)는 『안개가 끼는날이면 눈주위가 가려워 견딜수없다』며 『최근들어 왼쪽가슴부위가 답답하게 느껴져 약을먹고있다』고 말했다.

麻浦區合井洞 閔모씨(38·여)는 『소문이나면 집값이 떨어질것같아 두렵지만 안개가낀날은 악취 두통으로 하루종일 짜증스럽다』고 실토한다.

택시운전사李鎭滿씨(41·서울江西區禾谷洞)는 『지난달29일저녁처럼 안개가 심하게낀날이면 이지역을 지날때 창문을열면 악취가 밀려와서 손님들이 창문을 열지못하게 말린다』고 말했다.

안개가 낀날이면 약국마다 기침약을 사러오는사람도 많아진다. 서울江西區登村洞A약국 尹모씨(36)는 『안개때문에 잔기침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안개가끼는날이면 기침약이 평소의 50%는 더 팔린다』고 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延世大 천문기상학과 曺喜九교수는 『기온역전현상이 발생하여 공장 주택등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안개와 작용해 스모그로 변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3~4일 이상 계속되면 심각한 폐해가 예견되는데、심하면 지난 54년이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장기적인 폐해를입힌 스모그현상처럼 극심한경우도 예상된다고 경고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현상의 원인은 해안분지로 1년을 통해 해안성안개가 발생、기온역전으로 거의 매일같이 백색 연무(煙霧)를 일으키는 기상조건에 자동차·석유계연료소비증가로 공해요인이 작용한것이다.

延世大예방의학교실 鄭勇교수는 『조사대상지역과 기타지역의 1일 오염농도와 자동차 통행량·주택·공장의 밀집도및 연료사용도·기상자료등의 정확한 자료가 선행되어야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이수립되지않으면 심각한 폐해가 예상될것』이라고말했다.

現代환경관리소 연구부 金海龍계장도 『안개영향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것은 사실』이라며 『주변의 공장과 주택·아파트등에서 집진기의올바른 사용과 조작원들의 교육이 요구되며 안개가 예상되는날은 강변도로등의 차량통행제한이 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 【朴榮基기자】

LPG값 引下에 택시만 "흐뭇"

社納金시비잦아 "料金도 마땅히 내려야"

택시의 주연료인 LP가스값이 33%나 크게내렸는데도 택시요금은 인하되지 않고있다.

LP가스값은 지난1월초부터 서울시내 5개충전소에서 경쟁적으로 인하되기 시작、3일현재 동자부고시가 1ℓ당 4백17원60전보다 33%나떨어진 2백80원에 거래되고있어 택시 1대의 하루주행분 연료50ℓ를 기준으로할때 약6천원정도의 연료대가 절약되고있다.

따라서택시요금도기본요금의경우 현행6백원에서 최고 2백30원선까지、주행요금은 현행50원에서 30원까지인하될수있을것으로 당국은 보고있으나 택시요금이 인하될눈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요즘 조정되지않고있는 사이에 택시회사와 운전사간에는 절약되는 연료대가서로 자기네 차지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분쟁이 벌어지고있다.

운전사들은 사납금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있고 택시회사측은 월급제가 실시되고있기때문에 연료대를놓고운전사가 왈가왈부하는것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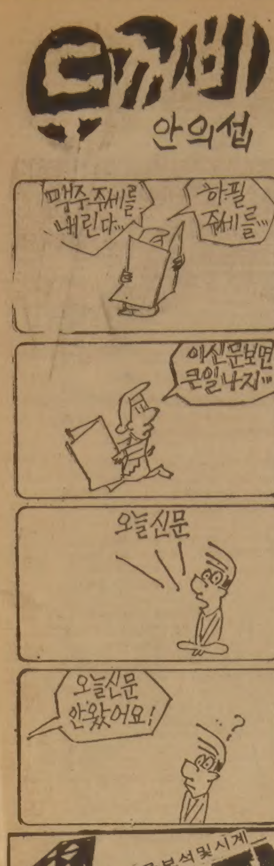
한 택시운전사는 택시50대를 가진 회사의경우 한달에 1천만원정도의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LP가스값 인하요인으로 생기는 원가절감분은 당연히 소비자인 택시승객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교통부는 그동안 택시요금을 인상할때마다 연료비인상을 앞세워왔고 지난해봄 휘발유차를 전부 LP가스로대체하면서 원가인하요인이 생겼으나 당시 택시운전사월급제를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그이익을 택시회사에 귀속시켰었다.

교통부는 동자부가 고시가격을 인하하지 않을경우 가격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시기를 결정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동자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고시가이상 받는 업소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고시가 이하로 값을 내려받는것은 어쩔수 없다』며 고시가 변동과 교통요금조정은 함께 묶을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교통부관계자는 『기준만서면 LP가스값이내린만큼 택시요금을 인하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서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검소하고 단정한 옷을"

문교부 전국中高教師 반상회参席 홍보토록

문교부는 3일 오는새학기부터 실시하게될 교복자율화에대비, 전국의 모든중고교교사들은 이달에 개최되는반상회에참석, 학생들이 복장과 머리를 검소하고 단정한차림을 하도록 주민홍보활동을 펴라고 전국시도 교위에시달했다.

문교부는 이지시와함께 각급학교는 2월한달을 교복자두발자율화에따른 학생의 준비태세 정착기간으로 정하고 ▲비행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실시 ▲훈화교육강화 ▲자유복착용 ▲학생회등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분위기조성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계도등을 집중적으로 펴나가도록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교복자율화에 따라 학생들의 탈선이 많을것에 대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이들을 선도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세어린이 殺害犯 어제現場검증

【釜山】부산影島 세어린이 피살사건의 범인 朴모군(17·釜山市影島區蓬萊洞)에 대한 현장검증이 3일 상오9시30분부터 釜山지검 이철검사지휘로 실시됐다.

이날현장검증에는 범인 朴군이 범행당시 입었던 푸른색 운동복을입고 피해어린이의 부모가 경영하는 N라면대리점에서 신씨부부가 제사지내러간다는 전화를 엿듣는 장면、자기집에서장갑、마스크등을 챙겨 범행준비를 하는과정、피해자집에 침입 TV를 보고있던 세어린이를차례로 변소쪽으로 유인、범행하는장면、피묻은 마스크와 면장갑을 자기집 옥상에서담넘어로 던지는 장면등 범행준비에서 도주까지의 28개장면을 재연했다. 【釜山】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억울한 獄살이 百77일

정신병疾患者신고로 拘束후 無罪

【大邱】경찰이 알콜성망상 정신병환자는 도난피해자의 신고만믿고 이웃청년을 절도범으로몰아 구속했으나 1백77일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大邱지법형사4단독 韓宗遠판사는 3일 특수절도죄로 징역2년을 구형받은 周淳在피고인(20·大邱市南區辰泉洞545)의 선거공판에서 『알콜성망상정신병의 증세가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엇갈리고 일관성이없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대한 직접증거가 될수없다』고 판시, 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周씨는 지난해 8월6일밤 11시께 大邱市 南區 辰泉洞 南大邱경찰서관내 月背파출소앞을 지나다 특수절도혐의자로 검거돼 3일후인 9일 구속된후 지난1월19일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었다.

周씨가 특수절도 혐의자가 된것은 지난해 7월3일 大邱市南區辰泉洞 李모씨(41)가 자신의 점포에 周씨가 다른 절도범1명(성명미상 수배중)과 함께 전날인 2일밤 11시30분께 침입 손금고1개(싯가 8천원)와 금고안에있던 현금 24만3천원을 털어갔다고 관내 月背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비롯됐다.

周씨를 경찰에신고한 李씨는 大邱南部서에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1차진술때는 사고당일밤 周씨가 자신의점포에서 금고를 턴 다른범인 1명과함께 인근시장으로 달아나는것을 발견 쫓아가다놓쳤다고 말했고 2차진술때는 잠을 자고있는데 부인 李모씨(40)가 도둑이라고 고함을질러 깨보니 周씨가 금고를들고 달아났었다고 엇갈린 진술을했었다. 【鮎】

家長이 집에불질러

姑婦불화로… 셋죽고 6명火傷

【光州】고부간의 불화를 참다못한 40대 가장이 자기집에 불을 질러 3남매가 숨지고 일가족 5명이 화상을 입었다.

3일하오1시10분께 光州市西區秀林2洞226 張八龍씨(42)가 자기집안방에 인화성이 강한물질을 던지고 불을질러 방안에있던 張씨의 2녀 喜順양(12)과 3녀경화양(5)외아들漢洙군(2)등 3명이 불에타숨지고 부인 鄭良順(36)와 장녀 周心(14) 4녀 효남양(3)등 5명이 중화상을입고 조선대의대 병원에서 치료를받고있으나 중태다.

張씨는 이날아침식사후 어머니 박길례씨(70)와 부인 鄭씨가 땅판돈 1백80만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싸우는것을 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이같은 범행을했다.

돼지와 개등을 기르며 살고있는 張씨는 최근 집앞땅을 1백80만원에 팔았는데 이 돈중 50만원을 처가에줘 고부간에 심한갈등을 빚어온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張씨를 방화살인혐의로 긴급구속했다. 【鮎】

한국船員1명 失踪

푸에르토리코 北쪽

【샤러트 어말리어(美버진諸島) UPI=聯合】한국선원 1명이 지난달 31일 푸에르토리코 북쪽해안해역에서 타고있던 미국선적의 호화유람선 노르웨이호로부터 바다에 투신했거나 또는떨어져 실종됐다고 1일 동료선원들이 말했다.

한국인동료선원들은 洪수경(36)씨가 떨어진후 노르웨이호가 바다를 수색했으나 그를 찾지못해 해안경비대소속헬리콥터1대가 수색작업을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언·카리비언 여객선회사소속의 이 노르웨이호에는 현재 한국인승무원 1백60명이 일하고 있다.

共産側 대표등 9명에 팀스피리트 참관 제의

駐韓 유엔군사령부

주한유엔군사령부는 3일 군사정전위 공산측대표단 5명과 중립국감독위원 4명등 9명에게 지난1일 시작되어 오는4월중순까지 계속될 팀스피리트83훈련참관을위해한국을 방문해줄것을 제의했다.

로버트·W·세네월드사령관명의로된 이제의는 이날제 4백16차 군정위본회의에서 유엔측수석대표 제임즈·G·스톨스소장에의해 공산측수석대표 韓柱庚에게 전달됐다.

는데 유엔군사령부는 작년1월23일에도 팀스피리트82훈련에 공산측대표단의 참관을 제의한바있다.

스톨스소장은 이날 공산측요청으로 열린 군정위본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침공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공산측대표 韓柱庚의 격렬한 비난 발언을 듣고난 다음 이제 의를 내놓으면서『팀스피리트훈련이 방어적 훈련임을 당신네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하려는것이 이제의의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톨스소장은 이어 『귀하의 군사령관(金日成)에게 우리의 제의를 보고하고 그 수락여부를 통보하기위해 오는 10일에 4백17차 군정위 본회의를열자』고요구했다.

이에앞서 韓柱庚은 『나까소네 日수상의 방한과 韓·美·日3국의 군사유대강화는 전쟁을위한 미군측의 각본에 의한것』이라고 비난하고『지난달 서울을방문한 美육군참모총장 마이어대장의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사용」 발언은 核공갈이었다』는등 평소때보다 훨씬거친 발언을늘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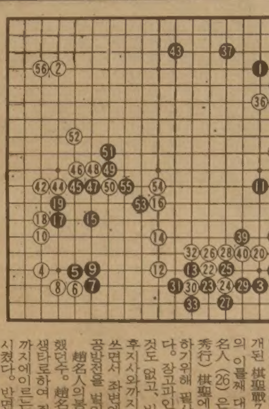
이에대해 스톨스소장은 북한군대는 지난73년에비해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2배이상 늘어났고 80만정규군은 은밀한 대규모훈련을 계속하고있다고 지적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은 이런 강력한북괴군에 대응하여 전쟁을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적을패배시키기위한 결의에 따라 강행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톨스소장은 또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팀스피리트83훈련에 때맞춰 북한이 인민경비대 勞農적위대등을 포함한 全軍에 準戰時상태돌입을 명령한것은 스스로 남북의긴장을 고취시키는 조치였다고반박했다. 【板門店=申鉉玉기자】

黑白세력 伯仲勢

日棋聖戰 제3국

【東京=宋孝彬특파원】3일속개된 棋聖戰7번승부 제3국의 이틀째 대국에서 趙治勳名人(26)은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에게 연3패를 면하기위해 필사적으로 두고있다. 장고파인 趙名人은 말할것도 없고, 비교적 속기파인 후지사와까지도 시간을 마냥 쓰면서 좌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있다. 趙名人의 봉수점白50은 예상했던수를 회생타로하여 좌변에서 왼쪽귀까지에이르는 白대가를 확정시켰다. 반면, 좌변아래귀쪽의 黑근거를 위협한 후지사와는 계속 견실한 실리작전으로 집을 벌어 들이고 있어 덤을 다투는 승부가될것으로 전문기사들은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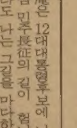


◇棋聖戰 7번승부 제3국1보(1~56)
白 도전자 趙治勳 名人(2패)
黑 棋聖 藤澤秀行 9단(2승)
<제한시간 각9시간·덤5집반공제>
【趙治勳後援會事務局제공】

志操와 信念 30년…남은건 세칸 집

마지막 黨人

別世한 民權黨 金義澤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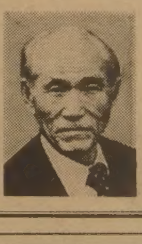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야당의 길」을 흔히 「사막의 길」 「고난의 길」이라했다. 그만큼 야당생활은 어렵고 고달프고 가난한게 사실이었다.

지난1일 民權黨총재 仁庵 金義澤씨(사진)의별세는 30년동안 이같은 야당의 길을 선비처럼 꿋꿋이 지켜온 최후의 「黨人」이 세상을떠난것을 뜻한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나는 것은 그가 눈감을 小居가 잘 말해준다. 서울城北洞슈퍼마키트 2층의 세칸집은 현역야당의 총재이자 최원로정치가의 집으로서는 너무나 초라했다.

仁庵은 12대대통령후보에 나서며 「새삼 民主長征의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외치던 出師때의 정신으로 야당생활을 해왔다. 그동안 不退轉의 노정객, 협상의 명수등 숱한 별명이 붙었지만 지조와 신념의 자세를 흐트린 일은 없었다.

仁庵은 54년 고향인 전남咸平에서 3대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면서부터 가시밭 정치인생을 연다. 이해 憲政史 파행(跛行)의 상징이었던 四捨五入 개헌안이 통과되자 海公, 維石등과함께 60인 호헌동지회에 참가했다. 이렇듯 仁庵의 정치생활은 처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4선의 경륜을 쌓고 민주당원내총무 新民黨총재권한대행등을 역임하면서 내논 「긴것은 자르고 짧은것은 이으면 된다」는 그의 대화정치이론은 요즘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가 유신이래 10년간의 정치공백을 떨치고 제5공화국출범과 함께 전통야당의 전통을 잇겠다고 나섰을때 세간에서는 多黨制下의 소산이라고 보아 찬 눈길을 보냈다. 이같은 눈총은 3·25총선에서 단2명의 당선자를 내 야당의 법통을 민한당에 넘겨주는 아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仁庵은 민주질서의 회복과 정통야당의 자세를 내세우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仁庵은 지난해 11월4일 臥病중 당총재직을 金正守권한대행에게 넘겨주면서 한 유언을 통해 「야당의 길」을 제시했다. 「야당의 길은 험하지만 정통야당은 그길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유지속에 「마지막 黨人」이 함축돼 있다. 【金永煥기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미
한국요리의 정통을 이어
한국적인 멋이 가득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돐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스페샬
3월말까지 (단 :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남편은 東南, 아내는 북벽루트로 에베레스트頂上서 만난다

◇西稜으로부터 본 에베레스트。왼쪽이 이마이隊의 북벽루트。오른쪽이 다까하시隊의 동남릉루트。

여성으로서는 처음 알프스 3大北壁등정자로 널리 알려진 日本의 이마이여사 (今井通子·40) 가 금년말부터 내년 1월에걸쳐 엄동기에 에베레스트에 도전한다。그의 남편다까하시·가즈유끼씨 (高橋和之·40)는 隊長으로 아내와함께 등정에나서 이마이여사는 中共측의 북벽 루트, 다까하시씨는 네팔쪽의 동남능선루트를 따라 각각 반대 방향에서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다。부부가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것은 사상 처음이다。

물론 겨울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것은 위험하다。작년말 일본의가또씨 (加藤保男) 가 엄동기에 첫 등정, 정상에 까지 올랐으나 하산도중 실종된 적이 있다。

겨울 에베레스트 등정의 복병은 태풍처럼 매서운 바람과 영하50도를 넘는 추위。특히 바람이 문제다。재작년 우에무라씨(植村直己)가 동남릉으로 도전했을때도 최종캠프 사우드콜에 쌓아두었던 장비와 식량이 바람에 날려 도전을 단념해야했다。이같은 교훈을 거울삼아 가또씨는 최종캠프를 사우드콜아래쪽에 설치했으나 거꾸로 정상어택거리가 길어 돌아오지 못했다。

日 夫婦의 愛情 등반

8천m 이상서는 바람이 강해 텐트를 칠수있는 조건이 되지못한다。이때문에 이마이 여사는 寢袋를 개량해 커다란 백을 고안,이것을 8천3백m 지점의 氷面에 고정시켜 전진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까하시隊 (약15명) 의 선발대는 8월초순 日本을 출발,에베레스트 옆에 있는 제 4위 고봉 로체봉(8,511m) 에 오른다。고지순응을 마친후 11월말 현지의 본대와합류, 동남릉을 공격한다。

한편 이마이隊 (약15명) 는 10월초 日本을 떠나 10월말 론보그 빙하 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 북벽을 따라 정상에 도전한다。성공하면 북벽 루트를 따른 엄동기의 첫 등정이 된다。

등정은 12월20일 께로 잡고있는데 兩隊가 긴밀한 연락을 취해 정상에서 악수할 계획을 잡고있다。

1953년 英國의 힐라리경이 처음 에베레스트에 오른 이래 에베레스트등정자는 모두 30隊 1백40명。부부가 아베크 등정에 나선것은 1979년 서독의 슈마츠 부처였는데 이들은 등정에 성공,하산도중 정상밑에서 동사했다。그러나 각각 다른 루트를 동시 등정한것은 동남릉,서능을 따라 1963년 美國隊가 도킹한적이 있다。부부가 각각 다른 隊長으로 정상을 공격하는 케이스는 처음이 될것이다。【閔炳宅기자】

美프로야구

슈퍼스타들엔 별난보너스

觀衆數따라 달라지는 가비 한打席마다 16萬원 받기도

미국 프로야구선수의 연봉과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되는가。현대 야구경제학의 치밀한 산출방법에 따라 책정되는 연봉수준은 선수들에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너스의 지급조항도 선수마다 각양각색이다。

특히 톱 클라스에 있는 메이저리그 프리에이전트(자유계약선수)들은 연봉외에 여러가지 보너스로 백만장자의 富를 누리고 있다。

관중수의 증가에따라 보너스를 받는선수가 있는가 하면 연봉외에 타석에 들어설때마다 2백여달러씩 받기로 하고 개인상 순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팀도있다。

지난해12월 휴스턴·아스트로스와 계약한 프리 에이전트 오마·모레노는 센터필더로 활약하는 댓가로 연 60만달러를 받으면서 7백회타석에 들어서면 15만달러까지보너스를 받을수 있다。

만약 그의 타석이 7백회에 못미칠때 (지난 시즌에는 7백6타석 착간)는 2백14만29달러(약 16만원)에 타석수를 곱한액수를 받게된다。

지난해 11월10일 드래프트가 결정된후 이제까지 12명의 프리 에이전트들이 연봉 1백만달러 또는 그이상을 받기로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중 특급선수로 꼽히는 스티브·가비는 샌디에이고·파드레스와 5년간 6백60만달러(약50억원)에 계약을 체결, 가장 큰 소득을 올렸다。

반면 양키즈는 모두 1천1백17만5천달러에 3명(스티브·켐프 5년·5백45만달러, 보브·서리 3년·2백5만달러, 돈·베일러 4년·3백67만5천달러)을 끌어들임으로써 양키즈와 아스트로스는 1백만달러 짜리선수 2명이상을 보유한팀이되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프리 에이전트 12명중 연봉이외 따로 보너스조항이 있는선수는 10명이다。

양키즈의 가비, 켐프, 베일러는 소속리그서 개인상을 획득하거나 팀이 리그서 우승, 또는 월드 시리즈서 우승할 경우에 5만~15만달러의 보너스를 받는다。

반면 화이트 삭스의 투수 배니스터는 아메리칸리그의 MUP (최우수선수) 나 사이·영상 수상의 위업을 이룬다면 25만달러의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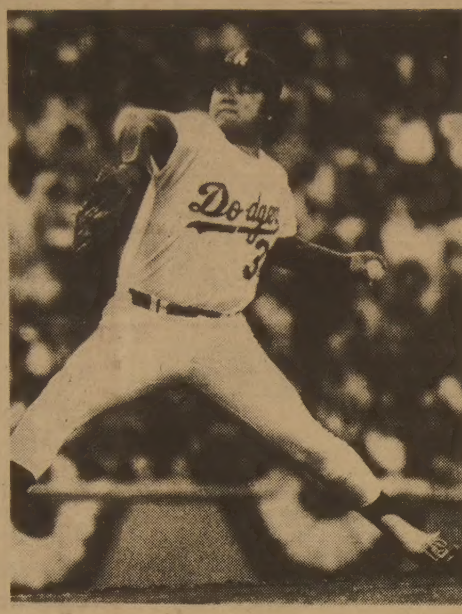
하지만 상은 받지못하더라도 사이·영투표서 6위이내, MUP투표서 10위내에 들면 별도 보너스를 받는 유리한 조건이다。

더우기 배니스터는 가비, 시애틀과 계약한 알·코웬스와 함께 관중수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특이한 계약도 따냈다。

화이트 삭스는 시즌중 일단 홈구장의 관중이 1백60만명에 이르면 그후 5만명이 넘을때마다 배니스터에 5천달러씩을 지급한다。

한편 샌디에이고·파드레스의 1루수인 가비는 입장객이 1백90만명이 되면 우선 5만달러를 받고 2백25만명에이를때까지 3단계로 나눠 5만달러씩 추가로 받아 최고 20만달러까지 보너스를 받을수있다。

화이트삭스의 최고 관중동원 기록은 77년의 1백65만여명이고 파드레스는 78년에 1백67만여명을동원했다。



◇미국프로야구의 새별 발렌수엘라。지난해 연봉의 3배가되는 1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기선수의 이동에 따라 관중의수가 크게 변동한다는데 근거를 둔 보너스 규정이다。

남캘리포니아의 최고 인기선수인 가비가 샌디에이고·파드레스팀의 관중동원에 갖는 영향력은 지대하다。화이트삭스의 배니스타보다 훨씬큰 힘을 발휘할것으로 보인다。

스미드씨는『가비와 입단계약을 한후 1천2백장의 새로운 시즌·티킷을 팔았다』며 즐거워하고 있다。계약을 끝낸때가 크리스머스 주여서 티킷판매를 우려했지만 하루 1백장의 시즌티킷을 판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

1년전 캘리포니아·앤젤스는 레지·잭슨에게 관중이 2백40만명을 돌파할때는 초과관중 1명당 50센트씩을 떼어주기로 했는데 아메리칸리그사상 최고 관중인 2백80여만명을 기록, 앤젤스는 잭슨에게 20만3천여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배니스터는 또 아주 드문 보너스 조항으로, 만약 계약마지막해인 5년째에서 2백10이닝을 던지거나 31게임에 선발투수, 또는 48게임에 출장할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3회까지 연장되는데 이 3년간은 연봉이 1백20만달러를 넘게 된다。

한편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을받고있는 로스앤젤레스·다저스소속 신인투수 페르난도·발렌수엘라는 지난해 연봉 35만달러의 3배에 가까운 1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1년의 루키로서 사이·영상 수상자이며 지난 시즌 19승을 올린 발렌수엘라는 83년 연봉을 1백만달러로 해줄것을 한중재자에 요청하고 있는데 다저스팀은 75만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의 프로팀에서 스카웃돼온 발렌수엘라는 작년에도 1백만달러를 요구했으나 계약경력이 없는 1년생이기 때문에 중재받을 자격이없어 35만달러의 싼값에 팔렸었다。

연봉중재신청 마감일인 지난1월25일까지 모두 84명의 프로선수가 중재를 희망했다。

그중 오클랜드의 외야수 리키·헨더슨은 지난시즌 도루 1백 30개를 기록한 도루왕의 업적을 들어 82년의 중재연봉 53만5천달러를 대폭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金東根기자】

퇴장당한 두選手 오만戰만 不出戰

泰청소년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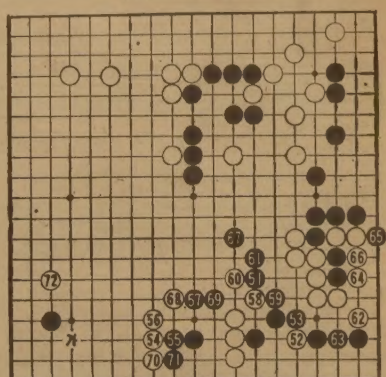
【방콕=聯合】제1회 타이국제청소년축구대회조직위원회는 2일 플로리다호텔회의실에서 대회참가팀 감독회의를 소집, 대폴란드전에서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한국의 HB 盧仁佑와 주장 文元根등 2명의 선수가 3일의 대오만전 한경기에만 출전할수없다는 결정을내렸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한국—폴란드전의 심판결정에 대한 한국팀감독의 항의를 받아들여이같이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 한국팀은 3일의대오만, 5일의 대 타이 B팀과의경기는 물론 타이 B팀에게 1—0으로 패한 헝가리와의 대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4강이 겨루는 준결승전에 무난히 진출할것으로 이곳 축구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

제14기 名人战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4譜 51~72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相澈<1勝1敗>
黑(6段)張秀英<2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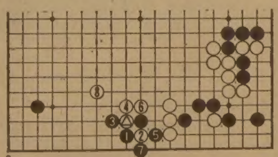
하변 白3점과 그 오른쪽 白6점이 양곤마모양으로 되어 李4단은 고민이다。그러나 먼저 하변부터 타개하기로 작정한것은 당연한데 白54가 미지근했다。

국후검토때의 결론인즉 54는 55자리에 붙여야 한다는것。참고도처럼 黑1이면 白2이하 8로 시원스레 수습된다。

실전은 黑55의 강수다음 57로써 돌이 분단되어 『三面楚歌』, 일이 더욱 어렵게 되어버렸다。

白58, 60까지 두어놓고 다시 곰곰 생각한끝에 급해진 우변을 62이하 66까지 살렸지만 黑67에 이르러 하변이 위태로와졌다。

"白軍 三面楚歌"



모처럼 白58, 60까지 둔 이상 계속 달아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결국 하변을 단념한 白68은 부득이한 조처이다。그런데 白72 열세를 타개하려는 수단이지만 차라리 白「가」의 좌로 턱을 찔러 선수로 수습한다음 변을 전개하는게 좋았다는 중론이다。【一凡】

海外 스포츠

"八堂에 馬術경기장 건립

金승마協회장 代表2~3명 곧 西獨轉訓"

대한승마협회는 3일 86년 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새집행부구성, 협회정상운영에 들어갔다。신임회장으로 아시안 게임준비업무를 맡게 된 金政宇회장 (豊韓紡織대표)은『곧 국가대표 2~3명을 서독에 파견, 전지훈련시킨후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시키고 그경험을 바탕으로 86년 서울아시안 게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金회장은『八堂지역에 1백만평의 부지를 확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룰수 있는 종합마술경기장을 건립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년 하반기에 西獨으로부터 우수지도자를 초빙, 국내강습회를 가질 예정이다。

◇승마집행부

▲회장=金政宇▲부회장=安德基·金村成·崔文鎬·成耆德▲전무=柳春澤▲총무=楊昌圭▲재무=金弼植▲경기=裵昌煥▲기획=李內奎▲국제=金一弘▲섭외=李棟▲수의=羅鍾克▲이사=金性哲·李三悅·白亨鎭·鄭君兌·申相敏·張鎭燮▲감사=邊鶴淵·黃龍洙

87年 세계탁구대회 서울開催여부 결정

4月 東京ITTF 총회

87년도 제39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서울개최여부가 오는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열리는 東京세계대회기간중 국제탁구연맹(ITTF)총회서 결정된다。

ITTF가 대한탁구협회에 알려온바에 의하면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2년마다 열리는 ITTF총회가 東京세계대회기간중 열리며 여기서 87년도 세계선수권대회개최지가 결정된다는것。

美下院 청문회준비 프로복싱 改革논의

【워싱턴聯合=特】美國하원 스포츠문제 소위원회 의장인 제임즈·플로리오씨는 2일 기자회견에서『프로복싱에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전제하고『金得九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의회는 더이상 프로복싱의 피해를 방관할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플로리오의원은 2주내에 前헤비급 세계챔피언 플로이드·패터슨, 저명한 스포츠아나운서 하워드·코셀, 복싱관계전문의학자들을 초청, 프로복싱 개혁방안을논의할 청문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후 의회에제출될 프로복싱 개선방안은 프로복싱에대한 국가적인 규제, 선수건강을위한 종합검진, 프로모터 자격강화등이 포함될것이라고 플로리오씨는 전했다。

길 ◇韓景職◇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마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것도 또한 사실이다。성경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다。그 장은『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된다。대중용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도 번역하였다。『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대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혹은『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사물을 확증해 줍니다』다시말하면 믿음은 우리 소망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일에대한 확증이다。

인간의 삶은 현재에만 사는 것이 아니다。미래에도 산다。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필요한데 이것이 믿음이다。또 우리는 보이는 사물 가운데서만 사는것이 아니다。보이지 아니하는 사물들이 많고 미래나 내세에 대한것도 물론 보이지 않는다。미래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곧 믿음이다。올바른 소망과 믿음이 없이 현재의 삶을 옳게 살수 없다。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믿음은 최악가운데서최선을엿본다。…믿음은꽃이떨어지기전에열매를 맛본다。믿음은노래없는새알속에서 종달새의노래를 듣는다。믿음은 신기루라고 탄식하는 곳에서 샘터를 찾는다』

張吉山 <1657>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7)

『그래서 그 말씀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적혀 있지요。재난과 횡액, 가난과 외로움의 고통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종이된 사람, 속세의 법률에 속박을 받거나 형벌을 당하여 죽게된 사람, 여덟가지 재난의 업을 지어서 큰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을보고 저들의 고통을 구제하여 벗겨준 사람, 서로 이별하고 패를 갈라 싸우고 송사를 일으켜 고통받는 중생들을 좋은 방편으로 화합 시키는 사람, 이런 이들이 미륵님과 만날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미륵님의 이름만 듣고도 스님뿐 아니라 남녀노유의 백성, 용, 마왕, 귀신, 야차, 아수라, 미물까지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읍니다。미륵님이 오시는 것은 말법의 때라 하였으니, 악과 고통이 세상에 가득 차는 때입니다。여러분 재작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참상을 겪어 잘 알겠지요。과연 법도가서 있는 태평성대라고 하겠읍니까。마을마다 굶어 죽고 염병에 죽어서 산촌에 텅 빈 마을은 얼마나 되었으며, 한 여름에 제비가 얼어죽고 봄에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해일이 덮치고, 어미가 자식을 먹으며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장이 식솔을 버렸으며, 시체의 옷을 다투어 벗기고,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참상을 돌아보기는커녕 유민이다 명화적이다하여 백성을 함부로 남형 살상하고, 조정은 패가 갈려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쫓아냈고, 위로 오랑캐와 아래로 왜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병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끓고, 사방에서 하어리와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지방수령과 양반을 도모하고 있읍니다。해서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서는 골골마다 작당한 녹림당들이 활빈을 자처하고 있읍니다。이미 아수라의 세상이오 말세가 되었으니 미륵님이 오실때가 된것이지요。여러분, 일찌기 지장보살님은 서원을 하기를, 육도 중생계에서 중생의 고통이 제일 심한 지옥으로 가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하고 혹독한 지옥의계로 내려가, 그들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과 괴로움을 함께 하다가 그들이 모두 고통을 끝내고 부처를 이룰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맨 나중에야 성불을 하겠다고 하였읍니다。지장보살께서 중생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불해야할 것을 스스로 가르쳐주신 것이라면, 미륵보살께서는 말법의때가될적에 당신이 오실것을 우리만백성의 실행으로 예비하라는것이오, 그때에 비로소 미륵님은 미륵부처님이 되셔서 용화세계를 우리와함께 이룬다는 뜻입니다。미륵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실행이 없고서는 부처님도 용화세계도 이룰 수가 없읍니다。당래하생(當來下生) 당래교주(當來教主)이신 미륵님은 우리 백성들이 이런 말법의 세상에서 맥없이 고통만 당하다가서 나중에 죽은뒤에야 극락에 가도록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바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라 하셨고 그때 오셔서 함께 이루겠다는 것입니다。역달중생공(亦達衆生空)하여 본성상여실(本性相如實)이오, 영경무우고(永更無憂苦)하며 자비무연(慈悲無緣)이로다』

여환은 합장하면서 설법을 끝냈다。이곳 저곳에 졸고 있거나 쓰러져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 이상은 여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듯 하였다。어떤 사내가 물었다。

『스님, 세상을 바꾼다니 무슨 천지개벽이라두 일어난단 말입니까?』

『미륵을 염원으로 믿고 따르면 개벽이 일어나지요』

한번 말문이 터지자 사람들의 질문이 뒤를 이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복합문화

우리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새로운 운율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오는것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는 시간과 노력에
필요하다.

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르는법

조화를 이루며 사는것은
어렵지마는 않다.
음악도 배움으로서 가능한것
같이 이해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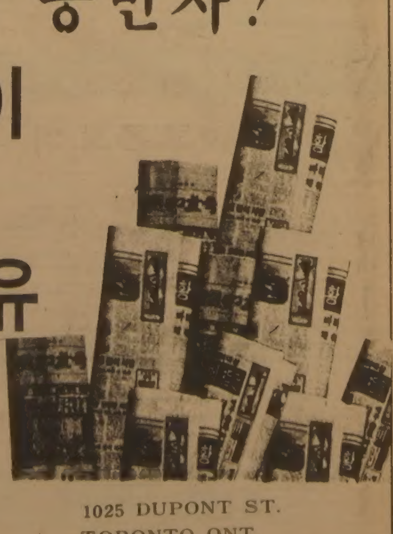
자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캐나다생활의 동반자!

열이면 아홉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



첫째 : 교포신문으로서 유일한 일간지로써 진실을 가리우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기사를 가장 빠르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 다른 어느 교포신문과 비교할수 없는 방대한 조직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폭넓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지혜를 풍부한 지면으로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1025 DUPONT ST.
TORONTO ONT.
☎ : (416)533—2361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와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텐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램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룸 메이트 구함.(1Bed 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782-9777(저녁 5시30분이후)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출퇴근하시면서 3살난 아이 돌보아주실 분.
주6일(화요일-일요일). 월요일 쉼. 다운타운지역
전화: 368-6544 Mrs. 리

적은 「레스토랑」 맡아서 하실분.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 좋음.(부부가 운영 가능함) ◉보증금: $1,000
695 The Queensway 전화: 251-1423(오후7시이후 요망)

Tavern 에서 일하실 경험 있은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491-4058

풀타임, 파트타임 도넛숍에서
밤일 하실분 구함.
전화: 977-0303

밴운전 할수있고 사닥다리 올라갈수 있는 미혼남자.
그림 그릴수 있으면 좋음. 1일 8시간 근무.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Mr. Lee Scarboro. Unit 9 rear.

입주하셔서 애기와 가사 돌봐주실
할머니 구함.
전화 : 266-6355

여자 캐쉬어 급히 구함.
영주권 가진 자.
전화: 691-6768 Mr. 김

저녁때 일할 파트타임 Hairstylist 구함.
Knob Hill Farms, 222 Lansdowne Ave.
전화 : 531-1011 Manager

사진식자 기술자(여자), 또는 배울분 급구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533-2361 Mrs. Kim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음.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3살, 4살된 두아이 봐주실분 구함.
Jane × Eglinton 근방
전화 : 247-0643 Mrs. 하

여 권 분 실

3주전 Yonge & Eglinton 써브웨이에서 지갑과 함께 분실했음. 여권번호: R 221793
Park Young-Hee 전화 : 922-2135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Building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지역
전화: 531-1023, 851-4116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있고 렌트 월 $600. 2년+5년 옵션.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 247-1090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탁+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타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동복 전문점 급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꼭 흥미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530-0023

◉쇼핑 Mall Smoke Shop
좋은 리스. 아스킹: $55,000
◉새로 시작한 Donut Shop
밝은 전망. 아스킹: $6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5,500
★535-0028 Mr. 김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몬트리얼 영어지역에 위치한 수퍼마켓 매매
좋은 리스 드림. 건물 매매도 가능함.
연매상: 80만불, 현주매상: $14,000
윗층에 아파트 4½ Room 있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실 메니저 구함.
전화 : 1-514-481-3291 Mrs. 김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Tuck Shop 급매(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 6시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 560-0612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모텔: 나이야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캄.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어 매매
전화 : 633-4983 Mr. 최(오후 1시이후)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백화점 2층 Rooming House 렌트
주: $50.- 씽글침대, 가구 준비되어 있음. 교통 편하고 쇼핑보기 편리함. 전화 : 536-1692

타운하우스 렌트 혹은 매매. 3 Bed Rm.
쇼핑쎈타및 학교 지하철 가까움. 동부 한국식품 근처.
렌트: 월 $630. 전화 : 439-4885

2 Bed Rm. 아파트 써브렛.(3월1일부터 입주 가능)
Queen & Lansdowne. 써브웨이 가까움.
렌트: 월 $402. 전화: 537-7624 Mr. 이(오후 7시이후)

방 하나 세놓음.
◉월: $150
전화: 466-2455(저녁6시 이후) Mrs. 조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 [illegible] 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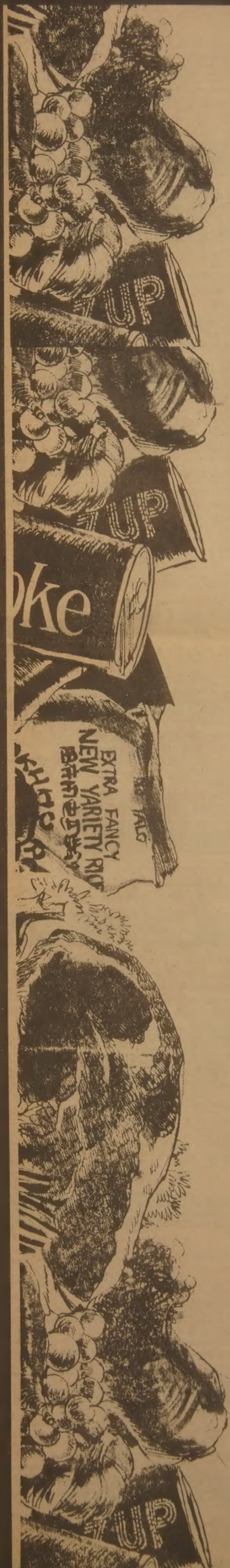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밀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외할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



특별세일기간
2월8일(화)
~3월8일(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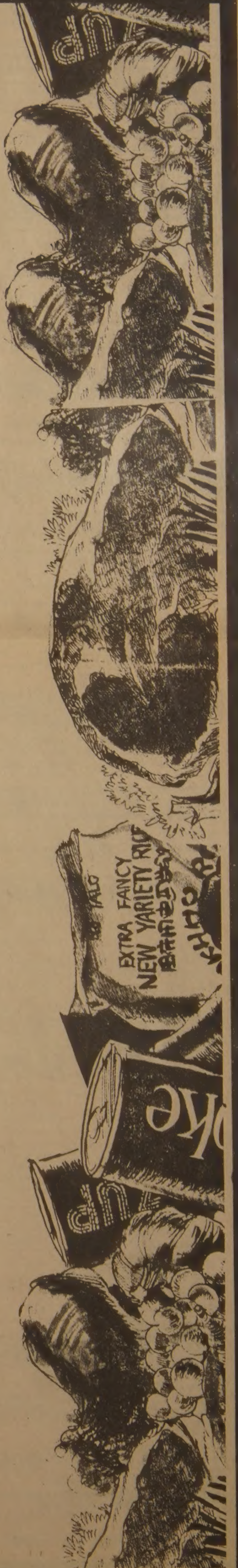
□100불이상 상품구입시
쌀50Lb(선학표 또는 가주미)
1푸대 Free

□50불~99불 상품구입시
라면(사뽀로 또는 삼양)
1Box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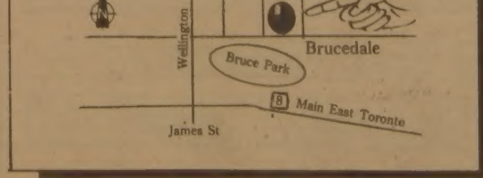
□30불~49불 상품구입시
닭표간장(900ml) 1병 Free

※Free 품목은 쌀, 불고기,
갈비, 참기름, 간장및 Box 품목
(예 : 라면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일일이 많은 스페샬품목을 열거치 않겠읍니다.
모든상품을 토론토사상 최하가격으로 봉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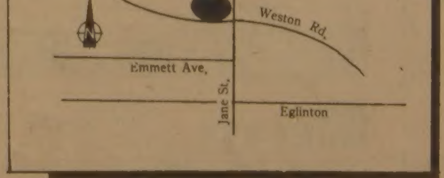


해밀톤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HAMILTON, ONT.
☎ : 1-385~1485

서 부 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랜스×웨스톤)
☎ : 243-9544